

제2절 복구지역

1. 흥해읍(興海邑)

1) 매산리(梅山里)

1914년 기산(箕山), 용산(龍山), 매곡(梅谷), 백련(白蓮)을 합하여 매산(梅山)이라 하였다.

● 심곡골(深谷)

골이 깊어 불린 마을명으로 옛날부터 산송이가 유명하다. 돌림산 중턱에 삼동계(參東契)를 조직하여 산남의진(山南義陳)의 의병 활동을 도왔던 조성목(趙性穆) 독립유공자의 묘가 있다.

● 용산(龍山)

300여 년 전 월성 손씨가 개척한 마을로 용을 닮은 산이 있어 마을명이 되었다.

● 매일(梅日) · 매곡(梅谷)

마을이 매화낙지형국(梅花落地形局)의 명당 터에 형성되어 매일, 매곡이라 불렀다 한다. 최제우(崔濟愚)가 신광면 마북리 검등골에 살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의 소개로 이곳의 동학교도인 손봉조의 집에 1862년에서 1863년 초까지 은거하면서 접주제를 확립했다고 한다.

● 치미 · 치산(箕山)

용산, 치산, 큰동네를 통칭하여 매일이라 부르며 앞산의 모습이 치(‘키’의 방언)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 백련(白蓮)

신라 때 백련암이라는 큰절이 있었다 전한다.

2) 북송리(北松里)

조선 철종 때의 군수였던 이득강(李得江)은 흥해의 상습적인 흥수를 막기 위해 북송리에 소나무를 심어 송림을 만들었다. 지홍관(池弘寬) 군수 때 폭 40m, 길이 10리에 이르는 북송숲이 되었다. 북송숲의 이름을 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두내리, 양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흥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관으로 옮겼다.

● **건너각단**

큰 마을 남쪽, 길 건너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이다.

● **양촌()**

조선말 유양촌(柳良村)이란 관리가 귀양살이를 했다 하여 ‘양촌(良村)’이라 불렀는데, 뒤에 양촌(陽村)으로 바뀌었다 한다.

● **새각단**

근세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매년 정월대보름 저녁에 건너각단 앞산 정상에 간수를 묻는 풍습이 있다.

3) **마산리(馬山里)**

앞산을 말머리산(馬頭山), 말뚝(馬山)라 부른데서 마을명이 연유한다고 하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병사들이 말을 매어 두던 곳이라 하여 마장동(馬場洞)이라 불리기도 했다.

● **마산 1리**

청룡사(靑龍寺), 포항전신전화국 흥해분국이 있다. 서남쪽에 대추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대추밭걸이 있고, 탕건처럼 생긴 탕건산 꼭대기에 고려장(高麗葬)을 했다는 큰 무덤이 있다.

● **마산 2리**

마산사거리 동쪽 과수원 일대에 대성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1988) 각종 아파트가 세워져 총 900여 호가 살고 있다. 대성아파트 입구에 영양이씨 열녀비(節婦曲江崔氏妻英陽李氏碑)가 있다.

4) **옥성리(玉城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옥리의 ‘獄’을 ‘玉’으로 고치고, 성서의 ‘城’자를 취하여 옥성리(玉城里)라 하였다. 향교산은 그 모습이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와우산(臥牛山)이라고도 한다.

● 옥리(玉里)

흥해군 관아의 감옥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옥리(獄里) 혹은 옥거리라 불렀는데, 후에 한자를 고쳐 옥리(玉里)라 하였다.

● 교리(校里)

‘향교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부른 이름이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된 흥해향교에는 서무, 동무, 명륜당, 서재, 동재, 수복실, 태화루 등이 있었으나, 6.25전쟁 때 대성전(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87호)과 동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불타 버렸으며, 1953년에 명륜당과 수복실을 신축하고 뒤이어 동·서무를 복원하였으며, 1990년대에 명륜당을 새로 지었고, 1996년에 태화루를 복원하였다.

● 성서(城西), 죽림동(竹林洞)

성 서쪽의 성서(城西)와, 향교 북쪽 대나무숲에 죽림동(竹林洞)이 있었으나 마을이 팽창하면서 위치나 경계가 희미해졌다.

● 신당곡(神堂谷)

1554년 남원 양씨(南原梁氏)가 개척한 마을이라 전하는데, 신당(神堂)이 있었으므로 신당곡(神堂谷)이라 불렀다. 흥해고등학교, 흥해중학교가 있다. 1996년 성내리에서 이 전한 흥해읍사무소가 있고, 흥해실내체육관이 근래에 신설되었다. 향교산에는 1975년 경상북도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이팝나무군락지가 있다. 1991년 흥해이팝청년회가 조직되어 이팝나무 꽃이 만발한 5월초 이곳에서 이팝축제가 열린다.

5) 약성리(藥城里)

1914년 약전(藥田), 북성(北城), 중흥(中興), 북문(北門)을 합하여 약성(藥城)이라 하였다. 흥해초등학교, 향가십인당(진각종, 1954)이 있다.

● 약전(藥田)

약성리의 중심마을로 약초를 재배하는 밭(藥田)이란 뜻에서 마을명이 유래되었다.

● 북문밖·북성리(北城里)

흥해성(城)의 북문 밖에 형성된 마을이란 뜻이다.

● 상중리(上中里)·중흥리(中興里)

약전리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 중리·중흥리라 불렀다. 30여년 전까지 상중리 중간에 있었던 연당의 수량이 많아 아래학성을 거쳐서 학성리의 미나리광까지 사시사철 흘러내렸다. 지금은 하천이 모두 복개되고 연당터도 메워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6) 학성리(學城里)

읍성 북문 밖에서 동북쪽으로 형성된 마을로 학성(學城), 곡성(曲城), 북흥(北興), 북원(北園)을 합하여 1914년 학성(學城)이라 하였다.

● 학성(學城)

마을에 글방이 많아 학성(學城)이라 불렀고, 읍성의 형태가 학(鶴)의 날개 같다고 해서 학성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 웅성리·곡성리(曲城里)

성벽의 선이 굽어진 곳에 망대(望臺)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웅기 같다 하여 웅성(甕城) 또는 굽진 곳에 있다 하여 곡성(曲城)이라 불렀다 한다.

● 북성리·북흥리(北興里)·북문리(北門里)

흥해초등학교 동편 마을로 옛 북문에서 연결된 도로를 경계로 약성리와 갈라져 있다.

● 새마치·새만리·뒀내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찬물이 작은 내를 이루어 여름이면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몸을 씻기 위해 모여들던 곳이다.

7) 남성리(南城里)

남문리, 뱃말꼭지, 성황리(城隍里), 양곡리(陽谷里) 등을 합쳐 남문의 ‘남’과 성황의 ‘성’을 따서 남성리(南城里)라 하였다.

● 남문리(南門里)

남성리의 으뜸 되는 마을로 흥해읍성의 남문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남문리(南門里) 또는 ‘남문밖’이라 하였다.

● 뱃말꼭대기

현 남성1리에 해당한다. 옛날 흥해 땅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이 곳에 배를 매어두는 나무가 있어 ‘뱃마루마을’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 성황리(城隍里)

조선말까지 흥해군수 참석 하에 성황제를 지냈던 곳이므로 성황리라 불렀다. 마을 남쪽에 나지막한 못산(池山)이란 산이 있어 마을 이름을 못산(池山)이라고도 한다.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이 있었으나 대부분 훼손되고 현재는 남서쪽에 3백여 미터가 남아 있다. 1994년 경상북도 기념물 94호로 지정되었다.

● 양곡(陽谷)

권무정 서편 옥성리와의 경계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8) 성내리(城內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북성, 서성, 동성을 합하여 성내리(城內里)라 하였다. 흥해읍성 터를 따라 그 안팎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년) 토성(土城)을 쌓았으나,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공양왕 1년(1389년) 그 자리에 돌로 다시 쌓았다고 한다. 읍성의 규모는 둘레 1,493척, 높이 13척, 우물 3곳, 남쪽과 북쪽에 각각 1개의 문을 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일민속박물관 담장 아래에 성돌 수십 개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1991년에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50호로 지정된 흥해군의 관아 건물인 제남헌은 조선 현종1년(1835)에 증건되었다. 영일군과 영일문화원이 공동으로 제남헌(濟南軒)을 수리하여 1983년 10월 29일 영일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영일민속박물관 남쪽 도로 건너편에 있던 흥해읍사무소는 1996년 옥성리 흥해중학교 남쪽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 2007년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

9) 중성리(中城里)

읍성의 동쪽에 위치하며 1914년 중리(中里), 야성(野城, 廣城), 이화리(梨花里)를 합하여 중리의 ‘中’자와 야성의 ‘城’자를 따서 중성(中城)이라 하였다. 2009년 5월 11일 중성리 167-1에서 국보급 포항중성리신라비(501년 이전)가 발견되었다.

● 중리(中里)

읍성 밖 동편 마을들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중리라 하였다. 옛 우시장(牛市場)은 망창산으로 옮겨가고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다.

● 야성()·광성·광세이(廣城)

망창산(41m) 북쪽에 위치한다. 마을 앞들에 넓은 성지(남미질부성)가 있다 하여 야성 혹은 광성이라 불렀다. 옛날 백정들이 소와 돼지를 잡고 가죽을 씻어 말렸다는 가죽뚝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어 공동창고와 노인정이 들어서 있다.

● 배꼬지(梨花里)

배가 드나들던 곳(串)이어서 불린 지명으로, 지금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흥해안들 북편 들녘을 고래가 드나들었다는 뜻의 고래들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조선조 현종 때 민유중(閔維重)이 유배를 당해 이곳에 살면서 배나무를 재배하였다하여 이화평(梨花坪)이라 부른 것이 이화리(梨花里)가 되었다고도 한다.

10) 망천리(望泉里)

1914년 망창의 ‘망’과 별천의 ‘천’을 따서 망천리라 하였다.

● 망창(望昌)

조선시대 망창역(望昌驛)이 있었던 곳으로 역촌(驛村) 또는 역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망천리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원망천(元望泉) 또는 원망창(元望昌)이라 부르기도 한다.

● 벌샘이(伐泉里)

마을에 평평 솟아나는 샘이 있어 벌샘(伐泉·羅泉)이라 하였다.

11) 남송리(南松里)

남천 상류에 마들, 새터(남휴리), 송리, 짓댕이, 서원마, 남대실 등의 자연부락이 1914년 남휴리의 ‘남’과 송리의 ‘송’을 따서 남송리(南松里)라 하였다.

● 마들

말을 사육하는 목장과 삼(麻)이 많이 생산되는 들이라 하여 ‘마들’이라 하였다고 한다.

● 새터

김해 김씨가 일군 작은 마을이었으나 광복 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새터’라 불렀으며, 두무치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흥해들을 바라보며 쉬었다 하여 남휴리(南休里)라고도 불렀다.

● 송리(松里)

새터 동편 천마산 북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곳에 형성된 마을이다. 월성 최씨와 월성 박씨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다.

● 짓댕이(池塘)

못이 있던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혹은 비가 오면 땅이 질어 ‘질땅’이란 뜻으로 ‘짓댕이’라 불렀다 한다.

● 서원마

곡강서원(曲江書院)이 있어서 ‘서원마’라 불렀다. 곡강서원은 임진왜란 때 의병에 가담하여 공을 세우고 병조참관을 증직(贈職) 받은 정삼외(鄭三畏)가 창건하였으나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폐되고, 그 자리에 곡강 최씨(曲江崔氏) 시조인 최호(崔湖)를 추모하는 재실인 영모재(永慕齋)가 들어서 있다. 곡강 양수장 바로 옆 암벽에는 충비순량순절지연(忠婢順良殉節之淵)이라고 새긴 비(碑)가 있다.

● 남대실(南大里)

밀양 박씨로 병참 벼슬을 한 분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고 이 곳에 정착하여 남대실이라 이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다.

곡강 최씨는 흥해 배씨(興海裴氏)와 함께 흥해를 본관으로 하는 두 성씨 중의 하나이다. 곡강 최씨는 고려 예종 때 신호위장군(神虎衛將軍)을 지낸 호(湖)가 곡강부원군(曲江府院君)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곡강으로 하고 그를 시조로 모시게 되었다. 1994년에 개교한 한동대학교가 있다.

12) 곡강리(曲江里)

1914년 봉림이, 동골, 너구(汝口), 흥곡(興谷), 곡강, 봉림이불(鳳林-) 등 자연부락을 합하여 곡강(曲江)이라 하였다.

● 봉림이(鳳林)

뒷산의 지세가 봉(鳳)의 형국으로 봉림(鳳林)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765년 발간된 영일읍지에 마을 앞 큰들을 봉림호(鳳林湖)라 기록하고 있다.

● 동골(東谷)

너구(汝口)의 동쪽 골이란 뜻을 가졌다.

● 너구(汝口)

여씨(汝氏)가 집성 세거하던 마을이라 하여 여구(汝口)라 한 것이 변음 되어 너구라고 부른다.

● 흥곡(興谷)

이 골에 들어와서 살면 흥(興)한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답다리 골 어귀에는 두부와 불당이 파손된 미륵석불(고 1.8m, 연좌대 직경 2m)이 남아 있다. 말을 닦은 천마산(天馬山)은 6. 25사변 때 아군과 적군이 서로 밀고 밀리는 격전지이기도 했다.

● 곡강(曲江)

신라시대에 병마를 방목 사육했던 지역으로 나부산(放牧山)이라 부르는 야산이 곤륜산(崑崙山, 177m, 일명 高靈山)과 마주하고 있다.

● 봉림이불마을

해안선을 따라 해풍과 모래를 막는 거대한 봉림수(鳳林藪)가 있었는데, 효종 때 최군수가 모두 베어 셋바람이 극심하자, 방목하던 말을 구룡포의 북목(北牧)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13) 용한리(龍汗里)

1914년 용덕(龍德)과 소한(小汗)을 합하여 용한리(龍汗里)라 하였다.

● 용덕(龍德)

먼 바다에서 본 마을의 지형이 마치 큰 용이 엎드려 있는 것 같아, 용의 덕(德)을 입어 살아가는 곳이란 뜻으로 용덕(龍德)이라 하였다 한다. 영일만신항 축조공사가 2009년에 완공되었다.

● 소한(小汗)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작은 내에 땀을 씻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든다 하여 소한리라 한다.

14) 우목리(牛目里)

1914년 왜골과 우목(牛目)을 합하여 우목리(牛目里)라 하였다. 우목은 누워있는 소의 눈 위치에 마을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우목구미(牛目龜尾)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정에 향토개발 선구자 유공비, 죽천 방면 우측 산에 해병 제일 상륙사단 자매결연비(1966), 제당 어귀의 향토개발 유공기념비, 마을 북동 해변 언덕 위에 조선일민무호박공도해비(朝鮮逸民無號朴公蹈海碑)가 있다.

15) 죽천리(竹川里)

봉화산(烽火山)의 동남 기슭 해안의 어촌 지을(知乙)과 대벌이를 합하여 죽천(竹川)이라 하였다.

● 지을(知乙)

숲과 물이 좋아 새들이 많이 서식하였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 대벌이(竹川里)

벌에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대벌이라 부른다. 1988년 포항전문대학(현 포항대학)이 송도동에서 이곳으로 이전 되었다. 대학의 서편 절골에는 세심선원(洗心禪院)이 있다.

16) 용곡리(龍谷里)

용연(龍淵)과 이곡(耳谷)을 합하여 용곡(龍谷)이라 하였다.

● 이곡(耳谷)

마을의 모습이 귀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터(新基)

북천 가에 용연(龍淵)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수해로 폐허가 되고 서북쪽 100여 m 언덕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일컫다 한다. 고인돌 5기가 귀일과 새터 중간 지점에 남아 있고 호리못 뚝 아래에 정교보유공비(鄭僑輔有功碑)가 있다.

17) 양백리(兩白里)

마을 뒷산 성지곡(聖旨谷) 일대에 학의 집단 서식처가 있어, 산이 희게 보인다 하여 백산(白山)이라 하였다. 내백과 외백 두 마을을 합쳐 양백리(兩白里)라 하였다.

● 내백(內白)

외백 안쪽에 위치하며 원래 오천 정씨와 여강 이씨의 집성촌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월성 이씨와 선산 류씨가 들어와 대를 잇고 있다.

● 외백(外白)

뒷산 가리점(葛點) 산등에 배천희(裴千熙) 국사(國師)의 묘와 배 국사의 말무덤이 있다. 본관이 흥해로 고려 충렬왕 33년(1307)에 흥해에서 태어난 배천희 국사는 13세 때 반룡사(盤龍寺)의 일비(一非)에서 출가하고, 1325년에 승과에 급제한 후 원나라에 들어가 강남(江南)의 몽산(蒙山)에게 의발(衣鉢)을 받고 귀국했으며, 공민왕 16년(1367)에 국사(國師)가 되었다. 그가 당시 승려로는 최고 지위인 국사로 책봉됨으로, 국사의 고향인 흥해가 동경유수관(東京留守官)의 속읍(屬邑)에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다 한다. 배 국사의 형인 배전(裴詮, ?~1361)의 후손들이 매년 10월 7일에 묘제를 지내오고 있다.

18) 덕성리(德城里)

1914년 덕곡(德谷)과 장성(長城)을 합하여 덕성(德城)이라 하였다.

● 덕실(德室)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덕실(德室·德實)이라 불렀다 한다. 월성 이씨 입향조를 추모하는 재실 이상재(履霜齋)가 있다.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다.

● 장성(長城)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노동(不老洞), 장생(長生)골이라 하여 장생이라 불렀는데, 어떤 흥해군수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 고명(高名)과 같다 하여 장성(長城)으로 고쳐 쓰게 했다고 한다.

● 안동네

이씨 가문의 재실 덕봉재(德峯齋)가 있으며, 화왕산(火旺山) 전투 때 창의종군 하였던 이봉수(李鋒壽), 이열(李悅) 의사의 출신지이다.

19) 덕장리(德壯里)

1914년 못밑(德山), 원두들, 장자(壯者)를 합하여 덕장(德壯)이라 하였다.

● 웃장자

옛날 백만장자가 살았다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아랫장자마을에 장사가 나는 샘이 있어 장사(壯土)마을이라 하여 장자동(壯者洞)이라 했다고도 전해진다.

● 아랫장자

마을 서남쪽에 둔각지(頓角池)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웃장자마을에서 전라도 모처에서 구하여온 긴 빨나팔을 못가의 누각에서 불어 시간을 알렸다고 전해져온다.

● 못밑(德山)

못이 있는 장성(長城) 마을 아래에 위치한다 하여 못밑이라 한다. 일명 덕산(德山)이라고도 부른다.

20) 용전리(龍田里)

1914년 신성동(新成洞)과 용전(龍田), 임천(林泉)의 일부를 합하여 용전리(龍田里)라 하고 각각 1, 2리로 나누었다.

● 신성동(新成洞)

이 마을 북서쪽에 있던 안삼바리(三海)라는 어촌이 없어지고 이 곳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자 신성동(新成洞) 혹은 삼바리라 부르게 되었다 전한다.

● 용전(龍田)

큰 용이 승천하면서 꼬리로 곡강의 하구를 치니, 호수였던 이 지역의 물이 빠져 육지가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용전이라 하였다 한다.

● 임천(林川)

곡강지서가 있었으나 1998년 7월 11일에 흥해파출소와 통폐합되었다. 한때 곡강면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다.

21) 용천리(龍泉里)

1914년 용소(龍沼), 임천(林泉), 굴산(屈山), 신탄(新潭), 별재(伐堤) 등을 통틀어 용천(龍泉)이라 하였다.

● 굴산(屈山)

강물(北川)이 마을 앞에 굽이쳐 흘렀기에 굴산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임천과의 사이에 4기의 고인돌이 있다.

● 임천(林泉)

마을 동편 숲속에 샘이 있어 임천이라 하였다 한다. 성혈식 고인돌 3기가 있다.

● 용슬(龍膝·龍沼)

마을 앞 하천에 소(沼)가 형성됐는데 그 모습이 용을 닮은 데다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용소라 했으며, 마을의 위치나 형태가 용의 무릎에 해당된다 하여 용슬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다.

● 신탄(新潭)

맑은 물웅덩이를 개발한 데 연유한 지명이라 한다. 뒷산 오천 정씨 묘역에 3기의 고인돌이 있다.

● 별재(伐堤)

일제시대에 도로가 나기 이전까지 청하와 흥해를 잇는 주도로가 이곳을 지났으며, 고갯마루에 고인돌 2기와 큰 서낭당이 있다.

22) 금장리(金莊里)

1914년 금사(金沙), 선돌배이, 장동(壯洞), 바래미, 방근(芳近), 시란 등을 합하여 금장(金莊)이라 했다.

● 금사(金沙)

마을 뒷산에서 사금이 나온다 하여 금사동 혹은 금사방이라 불렀으며, 서당마을이라 부르기도 했다.

● 선돌배기·새탑(立石)

일곱개의 고인돌이 있던 곳에 형성된 마을이다. 현재 2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 장동(壯洞)

수곡(壽谷)산 골짜기에 위치하며 마을 남동쪽 산머리에 사자형국의 덩방산이 있다.

● **바래미**

지형이 바릿대 같다하여 발산(鉢山),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 하여 바래미라 불렀다 한다. 주변에 왕대나무가 많다.

● **방근(芳近)**

멀리 개천이 보인다고 망계(望溪)라 했다가 글자의 음(音)이 좋지 않다 하여 방근(芳近)으로 개칭했다 한다.

● **실안**

곤륜산 서편으로 못이 메워진 자리에 형성된 마을이다.

23) 흥안리(興安里)

낙시봉과 곤륜산 기슭에 위치한다. 한 때 흥해군 북하면(北下面) 소재지였으며, 큰 뜰, 연당뜰, 곤륜산밑 등의 마을을 합하여 흥안리라 하였다.

● **큰뜸**

‘큰 마을’이란 뜻이다. 도로 남쪽에 북하면사무소가 있었으며, 1914년 이후 곡강면 사무소로 이용되다가 면사무소가 용천리로 옮기면서 폐지되었다.

● **연당뜰**

마을 동남쪽 산등성이에 신라 때 쌓은 토석성(土石城)인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 터가 있다. 북미질부성은 남미질부성과 같은 시기인 신라 지증왕 5년(504) 9월에 역부(役夫)들을 징집하여 흙으로 쌓았다.

북미질부성은 축조된지 425년 후인 고려 태조 13년(930)에 이 성의 성주 환달(萱達)이 남미질부성 성주와 함께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여 고려에 복속되었다. 그 후 고려 현종 2년(1011)에 흥해읍성이 축조됨에 따라 성의 기능이 약화되어 흥해군의 주변 성으로 조선 중엽까지 동북쪽의 해적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성의 흔적만 남아 있고, 성내에는 수십 기의 묘지가 들어서 있다. 마을 동쪽 곡강천 옆에는 2004년 6월에 완공된 흥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24) 칠포리(七浦里)

수군만호진(水軍萬戶鎭)이 있던 지역으로서 조선 고종 8년(1871) 동래로 옮길 때까지 군사기지로 번창하던 곳이다. 중종 5년(1510)에 쌓은 칠포성의 흔적이 있고, 성벽 기층에 “正德十年乙亥造築城”이란 글이 남아 있다.

● 강북(江北)

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의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칠포성터와 옛 칠포초등학교에 이르는 마을이 형성돼 있다.

● 강서(江西)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49호로 지정된 칠포리암각화(七浦里岩刻畫)가 있다.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가로 2.5m, 세로 1.5m, 높이 1.4m의 자연석을 중심으로 주변 네다섯 개의 바위에 가면(假面)모양 같기도 하고, 검파형(劍把形) 같기도 하며, 방패 모양이나 소머리 모양 같기도 한 문양이 여러 개 새겨져 있는데, 선사시대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 8월에 대원군 척화비가 발견되었는데, 이 비는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5) 오도리(烏島里)

오도(烏島)는 ‘검은 섬’이란 뜻이다. 섬목마을 앞 바다에 있는 바위섬이 까마귀처럼 검다고 오도(烏島)라 했다고 한다.

● 검댕이(檢丹)

청하면 신흥리로 넘어가는 길가에 비구니들만 있는 절이 있어 금단(禁斷)이라 한 것이 변하여 검댕이(檢丹)이라 부른다.

● 섬목(島項)

조봉산(鳥烽山) 기슭 해안에 위치하는 어촌으로 오도로 건너가는 길목이므로 섬목이라 했다. 청하면 청진리와의 경계 지점에는 박정희대통령각하순시기념비(朴正熙大統領閣下巡視記念碑)와 1978년 김수학 경상북도지사가 세운 영일사방준공비가 있다. 2007년 구봉산 일대에 영일사방기념공원을 준공했다.

26) 초곡리(草谷里)

사일(士逸)마을 어귀에 숲이 있어서 선비들이 숨어 살기에 적당하므로 사일(士逸)이라고 불렀다 하며, 고려 말에 보승랑장(保勝郎將)을 지낸 장표(張彪)가 입향하여 초막을 짓고 숨어 살았다 하여 초곡(草谷)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월남참전 해병 상이용사들이 야산을 개간하여 농업단지를 형성하였던 해병새마을은 1980년대 이후 없어졌다. 한센병환자 정착촌인 베다니아 마을은 1994년 마을 전체가 주택단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성곡리로 이주하였다. 마을 어귀에는 연(蓮)이 자생하는 서림지(西林池)가 있다.

27) 학천리(鶴川里)

1914년 학림의 ‘학’과 ‘천상’의 ‘천’을 따서 학천리(鶴林里)라 하였다. 학천리 골짜기에 천곡사(泉谷寺)란 절이 있다. 이름이 말해주듯 이 절은 우물이 유명하다.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중 이 곳에 머물면서 목욕을 한 후 완치되었다 한다. 왕은 자장율사(慈藏律師)로 하여금 절을 짓게 하고 천곡사(泉谷寺)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선덕여왕이 목욕을 했다는 전설상의 우물인 석정(石井)과 조선 숙종 15년(1689)에 세운 천곡사사적비(泉谷寺事蹟碑)가 있다. 1922년에 건설된 상수도 수원지가 있었으나, 1998년 여름 태풍 예니호의 피해로 붕괴된 후 수원지를 폐지하고 2004년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을 개장했다.

● 내말이(村上)

학천의 남쪽 등들 위에 있으므로, 또는 학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내말이라 했다고 한다.

● 강당(講堂)

조선 영조 때의 선비 최천익(崔天翼) 진사가 제자들을 가르친 강당(講堂)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 1990년대 말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2001년 포항시농산물공판장이 들어섰다. 천곡사 입구에는 고려말 불교의 큰 별 배천희(裴千熙) 국사(國師)를 모신 사당과 “국사배선생유허비(國師裴先生遺墟碑)”가 남아 있다. 2006년 11월에 문을 연 포항교도소가 있다.

28) 성곡리(城谷里)

성하(城下), 충곡(忠谷), 냉천(冷泉), 마장(馬場), 소पुर, 점촌(店村), 구억(九億)을 1914년 통폐합하여 성하와 충곡의 각 1자를 따서 성곡(城谷)이라 하였다.

● 말맛(馬場·馬坪)

조선조 효종 6년(1655) 대동배(大冬背)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토성을 쌓고 말을 사육하던 곳이며, 흥해 권무정의 공사들이 말타는 연습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 소पुर(沼蒲里)

소पुर(沼蒲)가 있었다 하여 소पुर이라는 설과 소पुर이 많이 난다 하여 소पुर이라 했다고 한다.

● 나환자촌(애도원)

판넛골이라고도 부르며, 6.25이후 개신교 재단에서 음성 나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개척한 양돈, 양계로 유명한 마을이다.

● 찬샘이(냉천)

200여 년 전 懷德黃氏가 터를 잡은 마을로, 물이 차고 맛좋은 샘이 있다하여 찬샘이라 불렀다 한다.

● 점촌 ·

상점과 주막이 있어서 마을명을 점촌 혹은 주촌이라 했다. 동네어귀에 한때 달전 지서가 있었다.

● 성하(城下)

마장성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성하리라 불렀다 한다.

● 구억(九億)

사일마을과 경계지점에 아홉 명의 억대 부자가 살았다 하여 구억이라 불렀다. 금강 정사(佛敎講學)가 있다.

● 충곡(忠谷)

충신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충곡(忠谷)이라 했다는 설과 남서방위의 산이 학의 형국이고 이 마을이 학의 먹이가 되는 위치라 하여 충곡(蟲谷)이라 불렀다 한다.

29) 이인리(里仁里)

1914년 초리(初里)와 인제동(仁堤洞)을 합하여 이인동(里仁洞)이라 하였다.

● 초곳(初里)

인근 부락 중 처음 생긴 곳이란 뜻으로 초곳이라 불렀다 한다. 달전초등학교와 이인교회가 있다.

● 의현동(義峴洞)

새마을 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소티재(小峴, 牛峴)에 위치한다 하여 의현(義峴)이라고 하며, 소티골, 소티재라고도 부른다.

● 어리못골(御米洞 · 仁堤洞)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도벼의 품질이 우수하여 대궐에 납품되었으므로 어미(御米)골이라 하고, 못을 어리못이라 했는데, 조선 초기 흉수로 못 독이 터지자 못 터에 마을이 형성되어 인제동, 어리못골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안태(內基)

초곳의 안쪽이라 하여 안태라 불렀다 한다.

30) 대련리(大蓮里)

1914년 대곡(1里), 연화(2里), 덕성(3里)을 통폐합하여 대곡(大谷)과 연화(蓮花)의 이름을 따서 대련(大蓮)이라 하였다.

● 하일(大谷)

대련천 상류에 위치하며 골짜기가 크다고 대곡이라 했다. 연(蓮)이 많아 꽃이 필 때 경관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하일(荷日)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전한다.

● 연화동(蓮花洞)

연(蓮)을 재배하던 연당이 많았던 마을이라 전한다.

● 덕성(德城·得聖)·서당골·사당골

왜병이 쳐들어 왔을 때 덕이 있는 분이 설득하여 물러가게 했다고 덕성(德城)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배천희 국사와 같은 큰 인물이 살던 곳이라 하여 득성(得聖)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배천희 국사가 상봉재 중턱에 서당을 지어 제자들을 교육하였기에 서당골, 국사의 사당이 있었다 하여 사당골이라고도 불렀다 전한다. 국사는 수백 수의 닭을 놓아 길렀는데 한 번도 산짐승의 피해가 없었다 하며, 집터에는 유허비가 남아 있고, 비각은 6.25때 포격 당해 파손되었다. 포항예술고등학교(1998년 개교)가 위치해 있다.

2. 신광면(神光面)

1) 냉수리(冷水里)

신광면의 최남단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8개의 자연부락을 합하여 냉수리(冷水里)라 하였다. 1리에는 용천(龍泉), 발가운데 마을, 아랫마을, 주막(酒幕)각 단, 모골, 새각단이 있고, 2리에는 신리(新里)와 원골이 있다.

● 용천(龍泉)

이 마을 북동방위에 용박골(龍岩谷)이 있고 그 안골에 신리지가 있다. 못 안쪽에 용마가 나타나 마주(馬走) 쪽으로 갔다는 전설을 가진 용암(龍岩)이 있는데, 여기서 솟아 난 샘물을 용천이라 하고, 부근에 형성된 마을을 용천이라 했다.

● 발가운데 마을

용천마을 아래쪽 발 가운데에 마을이 형성되자 지어진 지명이라 전한다.

● 아랫마을

용천마을 아래쪽에 위치하며 평해황씨와 청주양씨가 개척하여 세거하고 있다. 이 마을 남서 오릿당의 두 아름드리 당산목에서 당제를 지내왔는데, 이 나무를 없앤 후 마을에 우환이 잦은지라 다시 당산목을 심고 정월보름날 제사를 지내다가 30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다. 여강이씨(驪江李氏) 재실인 이로당(履露堂)이 있다.

● 주막각단·주막거리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경주와 청하로 통하는 주도로가 이곳을 지나가 주막이 많이 있던 마을이란 뜻에서 주막각단 또는 주막거리라 불렀다. 조선 말엽 경상감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교회 건너편 위치에 있던 세 아름드리 회화나무 정자 그늘에 쉬면서 마신 샘물이 워낙 차고 맛이 좋아 그 정자나무를 냉수정이라 이름 하였다 한다. 그 뒤부터 이 주막거리는 물론 아랫마을과 신리 일원을 돌말골(石斗洞)이라 부르던 것을 냉수동이라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1914년에는 용천, 새각단까지 통틀어서 냉수리라 칭하였다 한다.

● 새각단

경주시 강동면과 경계지역에 위치하며 40여 년 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새각단이라 한다. 16호 중 밀양박씨가 8호로 가장 많다. 뒷산에 아기를 안은 여인 형상의 바위가 있어 주민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 바위가 무너질 때 마다 바람난 여인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다.

● 모골(慕谷)

1959년 축조된 용천지(소매기못)를 돌아 산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월성이씨 송와공(松窩公)을 모신 모현사(慕賢祠)가 있어 모곡이라 불리었다 한다. 마을의 위치가 한쪽 모퉁이에 있어 방곡(方谷), 모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근년에 이르도록 3호가 살았고 모현사는 경주시 강동면 다산으로 이전하였다.

● 새마을·신리(新里)

돌말골(石斗谷) 골짜기 북쪽 언덕에 50여 호가 사는 마을이다. 여강이씨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면서 신리라 하였다. 원래는 이 마을 남쪽 언덕 등들 건너각단에 십수호의 진주강씨 집성촌이 있었으며, 그 일부가 신리 쪽에도 마을을 개척하여 살고 있었다고 한다.

● 원곡(院谷)

우각리(牛角里)로 넘어가는 언덕을 원(院)고개라 부르며 부근에 죽동원(竹洞院)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 고개 동편에 기계유씨(杞溪兪氏)가 개척하여 10여 호 살았는데, 6.25동란 때 함포사격이 격심하였던 격전지다.

2) 흥곡리(興谷里)

1914년 당내, 원흥곡, 마주와 벽동, 송곡, 기계면 종단의 일부를 합하여 흥곡(興谷)이라 하고 당내(堂內)와 원흥곡(元興谷)을 2리로 하였다. 서편 동풍지산을 넘으면 기계면 미현리에 닿는다.

● 당내(堂內)

마을 어귀에 당산목이 있는 큰 송림이 있었기에 불리워진 지명인데 지금은 십수 그루만 남아 있다. 오리 모양의 나무를 세우고 제단을 쌓은 곳에서 정월보름날 골안골 마을과 합동으로 당제를 지내왔다. 10여 년 전에 제당을 지었다. 골목신(神)으로 진씨(陣氏)를 모시고 있다. 월성최씨와 은진송씨가 세거하고 있으며 과평윤씨도 7호나 된다. 임란이후에 형성된 마을이라 전해진다.

● 원흥곡(元興谷)

골안골이라 부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 하여 근세에 이르러 ‘흥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흥곡이라 개칭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1, 2리 모두를 흥곡이라 호칭함에 따라 원래의 흥곡이란 뜻으로 원흥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 벽동·마주(馬走·麻助)

주막거리 서편 청룡봉(靑龍峯)으로 뚫린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냉수2리 신리에 사는 이씨 집안에 태어난 아기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는 등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전설에 의해 용마(龍馬)가 달아난 방향의 마을이라고 마주(馬走)라 하였다 한다. 마을 진입 도로변에 고인돌 1기가 있다. 옛날 삼밭이 많았을 때 마전(麻田)이라 부른 것이 와전되어 마조(麻助)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다.

● 점골

남서쪽 골짜기에 위치했으며, 옹기를 굽던 점(가마)이 있었다 하여 점골이라 불렀다. 지금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3) 우각리(牛角里)

도음산(禱陰山)의 북서 산기슭에 형성된 세 개의 자연부락인 우각(愚覺), 장당(長堂), 송동(松洞)을 합하여 1914년 우각리라 하였고, 1, 2리로 나누었다.

● 우각(愚覺·牛角)

멀리 비학산 쪽에서 이 마을을 바라보면 와우(臥牛) 형상을 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하여 불리어진 지명이라고 한다. 원래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손

자 오형제 중 막내인 이의온(李宜濶)이 입향하면서 어리석음을 깨닫는 현자(賢者)의 마을이 되라는 뜻으로 우각(愚覺)이라 불렀다 한다.

● 장대이(長堂)

1리인 우각에서 이사 온 여강 이씨들이 이룩한 마을이라 전하며, 옛날 마을 동편 산기슭 우각 가는 길(안들)에 기(奇) 정승이 살 때 그 집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므로 장당(長堂)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한다. 장당 북쪽 300여 보(步) 거리의 송동(松洞)이라는 송림 속 마을에는 20년 전까지 청송심씨(靑松沈氏)가 15여호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다 한다.

4) 죽성리(竹城里)

1914년 죽동(竹洞)과 중성(中城), 시룻골을 합하여 죽성(竹城)이라 불렀다. 원래의 중성은 없어지고 시룻골을 중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 댕골(竹洞)

대나무가 울창한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나, 대나무는 화재로 많이 없어졌다 한다. 마을 동남편의 숲은 백로와 왜가리의 서식처로 매년 봄에 수백 마리의 백로·왜가리가 날아와 새끼를 낳아 기른다. 마을에서는 백로와 왜가리를 위해 벌칙을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중성(中城)

토성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큰 우물이 근래까지 있었는데, 이 부근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이다. 그 샘에 범이 빠져 죽은 이후 변괴가 잦고 차츰 쇠물하여 버렸다 전한다. 이 마을은 우각동에 살던 김해김씨가 옮겨와서 일군 마을이라 하며 지금은 그 후손들이 시룻골에 옮겨서 살고 있는데, 이에 연유하여 시룻골 마을을 중성(中城)이라고도 한다.

● 시룻골

윗각단과 굽각단, 아랫각단이 있으며, 떡 시루를 만드는 옹기굴이 있었음에 연유한 마을 이름이다. 20여 년 전까지는 83호까지 살던 것이 지금은 60호 정도뿐이며, 김해김씨 20여 호, 월성이씨 12호가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5) 상읍리(上邑里)

비학산(762.3m) 동편 기슭에 위치하며, 1914년 상읍(1리), 새각단, 드문달이, 절안 마을(이상 2리)과 같은 자연부락을 통폐합하여 상읍(上邑)이라 하였다.

● 상읍

신광현기(神光縣基)가 있는 토성리의 윗쪽 마을이 되므로 읍의 윗마을, 즉 상읍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현풍곽씨(玄風郭氏)가 개척한 마을이라 하며 나주임씨(羅州林氏)가 세거하고 있다. 70여 호가 살며 정월보름날 동제사를 지낸다.

● 새각단

새로 생긴 마을로서 30호가 살고 있다.

● 드문달이

법광사지 동쪽에 여기저기 산재하는 27호 정도되는 마을이다. 언덕 위의 제당에서 정월보름날 동제사를 지낸다.

● 절안(寺內) · 법광(法廣)

법광사지내의 마을로서 5호가 살고 있다. 마을 남쪽에 1930년에 새로 건립한 법광사(法廣寺)가 있다. 신라 진평왕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인 숭안전(崇安殿)이 있다.

6) 토성리(土城里)

신라와 고구려가 옛재를 분계선으로 하여 서로 대치하던 시절에 흙벽돌로 쌓은 옛 성터를 중심으로 성내, 장터, 윗각단, 셋각단, 비선거리, 너매각단이 있고, 그리고 앞걸(南川) 건너에 갱빈마을이 있으며 이들을 합하여 1914년 토성리라 하였다.

동잉음현(東仍音縣, 신라 초기), 신을현(神乙縣, 신라 경덕왕 정유년), 신광현(神光縣, 고려 태조 13년~조선 고종 광무 13)의 기지(基地)가 있던 곳으로서, 예부터 이 마을을 토성리라 통칭하거나 신광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지금은 면소재지가 되어 있다.

● 장터 · 신광

100여 호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웃각단과 도로 서편에 형성된 장터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웃각단과 그 동편 옛 창고 터에 형성된 마을인 창마을, 신광중학교 서편에 형성된 비선거리와 같은 마을을 합하여 성안(城內)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 셋각단

장터와 너매각단 사이에 위치한다 하여 ‘셋각단’일 부른다. 너매각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토성 2리에 속한다.

토성2리에는 160여 호가 사는데 월성김씨가 10여 호, 과평윤씨가 30여 호 세거하고 있다. 이 마을 앞 논들에 있는 200여 년생 참나무 당산목에서 1·2리 합동으로 김씨 골막이 신위를 모시고 동제사를 지낸다.

● 갯빈마을

흔히 앞길이라 부르는 남천 건너 탑골 아래쪽에 10여 호 살던 마을인데, 사라호 태풍(1959) 때 침수되어 이주하고 마을이 없어졌다.

토성리의 동편에는 일명 향교산(鄕校山), 일봉(一峯), 관봉(冠峯), 월봉(月峯)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독매산(獨山, 104m)이 있고 그 북동쪽에 또한 단봉산(獨山)이 있어 일봉(日峯)이라 하는데, 옛날에 이 두 봉우리 사이에 신묘한 빛이 발산하였다 하여 신광(神光)이란 이름이 생겼다 전해지기도 한다.

7) 사정리(士亭里)

1914년 사미(士美), 모정(茅亭), 가척(加尺)을 합하여 사정이라 했다. 1리에는 가척, 안모정, 바깥모정, 2리에는 사미의 웃뜸, 아랫뜸이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근년에 개설되었다.

● 가척

마을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멀리서 보면 자의 눈금처럼 보였기에 붙여진 지명이라 전한다.

20여 호로서 처음 마을을 일군 주(朱)씨는 없고 평해황씨, 월성최씨가 그 후 세거하였는데 지금은 각각 4호 정도씩 살고 있다. 주성욱(朱成郁)의 가척보시설공적비가 사미로 가는 곳에 있다.

● 모정

옛날 넓은 잔디 벌에 울창한 정자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지명이라 한다. 월성김씨 집성촌으로서 안모정, 바깥모정이 있으며, 월성김씨 문중 소유의 재실 일모정(一茅亭), 쌍송정(雙松亭), 추모정(追慕亭)이 있다.

동제는 정월보름에 안모정에 있는 연당 곁 상수리나무 당산목에서 지낸다.

● 사정(士亭)

원래는 이 마을 남쪽 당산목 부근에 아주 맛있는 샘이 있어서 새미(泉味)라 불려오다가 200여 년 전 고을 현감이 순시차 들렀을 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에 감탄하여 사미(士美)라 칭하였다 한다.

큰각단, 모시각단(평지마을), 대밭각단으로 불리는 세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제당은 모시각단에 웃당, 큰각단에 아랫당이 있어 따로 지냈으나 최근에는 합동으로 두 곳에 번갈아 지낸다.

8) 안덕리(安德里)

1914년 안지(安地)와 지덕(地德)을 합하여 안덕(安德)이라 하였는데 자연부락으로는 2리에 못산, 개척당, 큰마을, 딱발골이 있고, 1리에 못안, 안마을, 황토골, 안지(安地) 등이 있으며, 특히 야지마을(안마을)은 목축업 등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

● 안지

마을 뒤 안지산(安地山)에 토굴이 하나 있어 빈번한 외침 때 피난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안지라 부른다. 월성김씨 터주마을인데 지금은 2호가 살며, 마을 총 호수는 20여 호다.

● 황토골

황토(黃土) 지역이며 월성이씨 10여 호가 집성 세거 했는데 4호로 감소되었다.

● 못안

12호 정도가 살며 ‘야(也)’자 모양의 산이 다섯이나 있다 하여 오야(五也)라 하고, 못이 있어 오야지라 한 데서 연유하여 마을 이름도 오야지라고도 부르며, 임란 때 주씨(朱氏)가 살면서 못을 막았다 하여 주가동(朱家洞)이라고도 불렀다. 옛날 젊은 과부가 살면서 엿을 만들어 팔았는데, 사방에서 찾아와 엿치기를 하였기에 ‘엿치기 마을’이라 한 것이 음이 변화하여 야치마을로 불렸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 큰마을

20여 호 살던 월성이씨 집성촌으로서 8대째 이어 살고 있는데, 지금은 12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 북동 언덕받이에 160여 년생 팽나무 당산목(수고 15m×가슴둘레 2.0m)에서 동제사를 정월보름에 2리에 속하는 자연부락 합동으로 지낸다.

● 딱발골

한지(韓紙) 원료인 닥이 많이 생산되던 마을이며 15여호 월성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6호만 남아 있다. 마을 어귀에 300여년생 느티나무 정자목 2그루가 있다.

● 개척당

큰 마을과 못산마을 중간 지점에 45년 전 형성된 마을로서 20호가 살고 있다.

● 못산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되고 마치 산처럼 변모된 못터에 마을이 생겨 못산이라 부른다. 50여 호 살던 마을인데 지금은 20호 남아 있으며 청주한씨가 7호, 전주이씨가 5호 세거하고 있다. 못둑은 80여m 그 흔적이 잔존하며 못둑 북쪽 부위 산록에 한

림정자(翰林亭子)란 큰 바위와 두 그루의 팽나무 노거수가 있는데, 어느 한림학사를 지낸 분이 쉬어간 곳이라 전한다.

9) 만석리(萬石里)

구만(九萬)과 입석(立石)을 합하여 1914년 만석리(萬石里)라 통칭하고 1, 2리로 나누었다.

● 구만리

마을 남쪽에 오목강 숲이라는 반달형 언덕에 노거수들이 수십 그루 남아 있다. 옛날 물이 굽이쳐 흐르던 곳에 흙이 쌓이고 농토를 일구어 마을을 형성하니 굽안마을이라 불렀는데 훗날 구만으로 변음된 것이라 한다.

● 선돌(立石)마을

현재 마을 남서쪽에 높이 2.4m, 너비 1.2m 정도의 바위가 하나 서 있는데, 주민들은 정월 보름 이 신석(神石)에 동제사를 지낸다. 이 돌은 신라 때 경주로 옮겨가던 것이란 전설이 있다. 원래 이 마을은 이 선돌 서편 산기슭에 자리하였다 하며 월성손씨가 터를 잡았다고 한다. 100여 호가 사는 이 마을에 월성손씨는 7호, 월성최씨는 8호 세거하고 있다.

10) 반곡리(盤谷里)

1914년 반곡, 쇧골, 옛재, 무덤실, 물고래와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반곡이라 하였다. 넓직한 큰 바위들이 여러 개 마을 앞에 있었으므로 불리어진 지명이다. 1945년 반곡지(만수면적 약 20ha) 축조로 바위들도 대부분 물속에 잠기고 140여호 중 반이 수몰되자 현 위치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 큰마을

절강편씨(浙江片氏)가 많이 살고 있으며 총 호수는 40여 호다. 마을 서북쪽에 도체가 숲이 있어 마을의 풍치를 돋운다. 음력 2월 28일 마을 어귀에 있는 제당에서 인동장씨(仁同張氏) 할아버지와 월성이씨 할머니 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오세흥(吳世興), 김찬묵(金燦默) 두 선비가 창건하였던 반곡서당(盤谷書堂)은 현재 휘문정(輝門亭)이란 편액을 달고 절강 편씨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

● 쇧골(金谷)

반곡지 남서편 골짜기의 마을로서 계곡에 금빛 모래가 많이 있어 불리운 지명이다. 반곡지 축조 후 젊은이들이 잇달아 죽는 괴변이 일어나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한다.

● **고래·물고래**

반곡지 아래 저습지에 물이 차기 쉬운 마을을 뜻한다.

● **옛재**

청하면과 경계를 이루는 육현(六峴) 중턱에 위치하며 2가구 정도 남아 있다. 이 고갯마루에는 200여 년생 노송(수고 20m×흉위3.3m)이 있어 당제를 근년까지 지내 왔었고 서낭당이 있었다.

● **무덤실**

옛재마을 남쪽 산허리에 위치하고 주위에 무덤이 많다 하여 불리게 된 명칭이다.

11) 기일리(基日里)

반곡지(盤谷池)에서 서쪽으로 터인 좁은 골짜기에 학전(鶴田)과 새터, 평장골(平章谷), 올금당과 같은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1914년 이들 마을을 통폐합하여 기일리(基日里)라 하였다.

● **학전골**

기일 입구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흔히들 아랫마을이라 부른다. 비학산 뒷 골짜기 마을이란 뜻으로, 혹은 학의 서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어진 지명이며, 진주강씨가 500여 년 전에 일구었다고 한다. 30여 호가 산다.

● **새터**

학전 남서쪽 마을로서 부락 뒤 옷나무골 어귀에 약수터가 있어 약수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 **평장골**

17호가 사는 기일의 중심마을로서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가 출생하였다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수령 3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 숲의 제당에서 정월 보름 날 사구당 할매 신위에 당제를 지낸다.

● **올금당**

평장골 남서 골짜기에 위치하며 옛날 용 다섯 마리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갖는 오룡탕(五龍湯)이란 곳이 있어 마을 이름을 오룡탕골이라 부른 것이 변음되어 오금당, 올금당이라 했다 한다.

12) 마북리(馬北里)

1955년 축조한 마북지(만수면적 12ha)에서 과령(掛嶺)으로 트인 깊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검등골, 인편, 수박골은 없어지고, 큰마을은 마북지 확장공사로 대부분 수몰되고 10여 호가 남쪽 산기슭으로, 다수는 흥해읍 북송리로 이주하였고, 당수동에는 20호 정도 살고 있다. 마북이란 지명은 반곡이 역촌일 때, 방사(放飼)한 말들이 말밭지재를 넘나들며 돌아다녔으므로 생긴 것이다.

● 큰마을

보통 마북이라 부르기도 하며, 창령조씨가 터를 잡고 후에 안동권씨, 인동장씨, 진주강씨가 입향하였다 전한다. 마을 어귀에는 안동권씨가 소반에 묘목을 엮어와 심은 느티나무 당산목이 있어 정월보름날 제사를 지낸다. 마북지 확장공사로 이 마을 대부분과 이 나무가 침수될 상황에 처하자 노거수회와 지역 언론의 구명운동으로 1998년 남쪽 언덕으로 이식되었다.

● 당수동(堂樹洞·堂伐磴)

400여 년전 인동장씨가 임진왜란을 피해 들어와 정착하면서 뒷산에 우거진 느티나무 숲에 있는 거목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 당수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그 숲을 베어 팔아버리니 당벌등(堂伐磴)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방아괘 모습의 과령(掛嶺)을 오르는 산중턱에 검등골이라는 5호 남짓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한 때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이 은거하였다 전한다. 이 재를 넘으면 죽장(竹長)의 상옥(上玉)으로 통한다.

13) 호리(虎里)

흔히 호리못이라고 부르는 용연지(龍淵池, 1953년 축조, 만수면적 87ha) 주위에 위치하며 자연부락으로는 호리, 윗두들, 개척단이 있다. 원래 범촌, 중리, 윗두들과 같은 마을이 있었는데 1914년 이들을 합하여 호리(虎里)라 하였다. 1953년 용연지가 준공되면서 김해김씨가 개척하였다는 40여 호의 각 성씨가 살던 중리(아랫마을)는 수몰되고, 상징바위인 범바위(虎頭山)도 만수 댐 머리부분만 노출될 뿐이다. 용연지란 이름은 이 못 상류 지역에 마치 용이 앉았던 모양의 흔적이 있는 큰 바위가 있었으므로 인하여 부르게 되었다.

● 새각단

중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못 남쪽 신작로변에 형성한 마을로 개척단, 신흥리, 새마을 등으로도 불린다. 근래에 식당과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서 있다.

● **왓두들·웃두들**

북서쪽 언덕 위에 위치하며 8호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밀양박씨가 모여 살며 과수원이 많다. 마을어귀 동산에 참나무 당산목에서 정월보름날 동제를 지낸다. 종과 시조 재실인 호계정사(虎溪精舍)가 있다.

3. 청하면(淸河面)

1) 덕성리(德城里)

고려 8대 현종 2년(1011) 지금의 성터에 토성을 쌓아 하방(河芳 또는 花芳)에 있던 현기(縣基)를 옮겨 덕성현(德城縣)이라 하였다. 이에 연유하여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향교골, 핑이골, 비달골, 동문걸, 서문밖, 덕송(德松)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덕성리라 통칭하였다.

● **동문걸·동밖**

성의 동문(東門)밖에 형성된 마을로서 주로 상가를 이룬다. 우체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고, 1914년 서문밖에 설립되었다가 1959년 이건(移建)된 제일교회가 있다. 일제 때 건립된 금융조합은 농협으로 개조되어 사용되다가 90년대 초에 장터 곁으로 이건하였다. 성터에서부터 이 거리에 걸쳐 청하장이 있었는데 5.16이후 새 장터로 옮겨졌다.

● **서문밖·성밖**

덕성서문(德城西門) 밖에 형성된 마을로서 지금은 비달골과 연결되어 있다. 소위 치도길인 7번국도가 포항, 영덕간에 뚫리기 이전까지 경주, 대구로 가는 주도로가 연결되었던 곳으로서 금은방과 각종 점포가 있었던 지역이다.

● **비달골**

원래는 현재의 위치보다 서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부락이었기에 ‘비달떡다(비루떡다)’라는 어원에서 생긴 지명이라 전한다.

● **핑이골**

성의 동편 골짜기에 위치하며 그늘진 곳에 얼음 저장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는 빙판이 생겨 잘 녹지 않으므로 빙골이라 하였던 것이 핑이골로 음이 변하였다 한다. 옛날 바다에서 큰 거북 한 마리가 새끼 여섯을 이끌고 이 마을에 올라와 살았는데 그 후부터 마을이 번창하였다하며, 정월대보름이면 제당(祭堂)에서 이 일곱 거북신위(神位)에 제사를 지낸다.

● 덕송(德松)

동문걸의 큰 길 건너 동편에 노송림이 울창하여 덕송이라 하였는데 차츰 마을이 형성되었다. 저자걸이 있고 청하침례교회가 있다.

● 교동(校洞)

향교가 있어 향교골, 교동이라 불렀으며 2리에 속한다. 월성이씨(月城李氏)의 집성촌으로서 골 원의 사저(私邸)와 아전이속(衙前吏屬)들의 사택 등 고급주택이 즐비하던 마을이다.

2) 덕천리(德泉里)

청하군 역면지역(驛面地城)이었던 것을 고종 32년(1894) 내북면(內北面)에 편입시켰다가 1914년 관동(館洞)과 송천(松泉), 외일동(外一洞)과 외삼동(外三洞)의 일부를 병합, 큰 샘(버덩우물)이 있다하여 덕천리라 하고 송라면(松羅面)에 편입시켰다. 1973년 7월 1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시 청하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관동(館洞)

조선조 때 송라도찰방(松羅道察訪)이 있던 마을이며 내일동이라 부르던 것을 고종 32년 찰방(察訪)이 폐쇄되자 관아소재지(官衙所在地)라 하여 관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둘레 521척, 높이 5척의 석축담장이 있었다하며, 연당(蓮塘)이 있던 부근에 300~400여 년생 은행나무 당산목(堂山木)이 있어 유씨(兪氏)터주, 진씨(陳氏)골목 신위에 동제사를 지낸다. 조선조 후반기에 이르도록 관전장(館前場 8일, 18일, 28일)이 섰다.

● 송천(松泉)

내일동이라 부르던 것을 찰방이 없어지자 송천수 속에 펄펄 솟아 흐르는 샘 이름을 따서 송천이라 하였다. 이 샘에 일인(日人)들이 혈(穴)을 질렀다 한다. 20여 그루의 노거수가 남아있는 송천숲 서편에 제당이 있어 정월보름마다 안씨(安氏)터주 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3) 미남리(美南里)

1914년 위 필미(筆尾), 남천(南川), 새장터, 관덕(觀德), 호암(虎岩)의 일부를 합하여 미남리라 하였다.

● 위필미·필미

뒷산이 붓끝 같은데 연유하여, 한편으로는 이 산이 일제강점기 철도역사터를 닦을 때 없어지자 붓을 가까이 하는 선비가 많다는 뜻으로 필미(筆尾)라 부르게 되었다 한

다. 지형이 행주형(行舟形)이라 하여 마을 가운데 짚대를 세워 두고 있으며, 배가 떠 내려감을 막는다는 뜻과 홍수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마을 남서쪽에 필미수(筆美葦)라는 송림을 70년 전에 조성하였다. 그 이후부터 가난하던 이 마을이 부촌(富村)으로 변모하였다 한다. 일제 때부터 과수원이 많던 곳이다.

● 남치이·남천(南川)

용산(龍山) 서북 편 자락에 형성된 마을인데, 미남천의 남쪽에 있다 하여 그렇게 불려졌다 한다. 마을 북동쪽 하천변에 있는 탕갓봉 중턱 서당골에 순흥안씨(順興安氏)가 자리를 잡고 마을을 일구었는데, 새 국도가 30여 년 전에 뚫리면서 마을이 양분되었다.

● 땅골·당동(唐洞)

용산 한 골짜기 속에 두세 집이 남아 있다. 초계정씨(草溪鄭氏) 재실(齋室)과 김해김씨(金海金氏) 재실이 있으며 천제단기도원이 있다. 옛날 신당(神堂)이 있었다 하여 당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용산 정상 남서 허리목에 용산사지(龍山寺址)가 있다.

● 새장터·사장터(射場)

조선조 때 궁술(弓述)을 연마하던 곳으로서 1910년대까지 망시루(望矢樓)가 있었으며 그 당시엔 오막사리 한 두어 채 있던 곳이라 전한다. 덕성리 북동편 도로변에 있던 청하지서가 1958년 이건(移建)되어 오고, 5.16직후 덕성리 성터에서 서던 장이 이 마을 가까이 옮겨옴에 따라 새장터라 부르게 되면서, 마을이 급속히 커지게 되었다.

● 관덕동(觀德洞)

관덕관송전(觀德官松田)의 북동쪽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라 전할 뿐이다. 관덕(觀德)은 덕성(德城)을 바라다보는 위치에 마을이 있다 뜻으로 풀이된다. 관덕관송전은 세종 때 조성된 숲으로서 그 일부가 남아 기청산식물원(箕靑山植物園)이 보전하고 있다.

4) 필화리(筆花里)

새 7번국도가 이 마을 1, 2리 사이를 갈라 지나고 있으며 옛 봉송전(鳳松田) 서쪽머리 자리에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10여 호가 새마을을 이루어 있다. 1914년 하필봉(下筆峰)과 화지동(花枝洞)을 합하여 필화리라 불렀다.

● 해필미·하필봉(下筆峰)·하필미(下筆尾)·구석필미

마을 뒷산이 붓끝 같다 하여 필봉·필미라 했으며 바다 쪽 마을을 하필미(下筆尾), 혹은 해필미(海筆尾)라 불렀다 한다. 정월보름날 마을어귀 노송림(老松林) 당산목에서 동제사를 지냈는데, 최근 격년제로 지낸다.

● **꽃이골·화지동(花枝洞)**

1리 구역으로서 옛날 이 마을 앞으로 청하천이 휘감아 흐를 때 현내사창(縣內社倉)이 있었고, 지형의 모습에 의해 ‘꽃이(串)골’이라 부르기도 했었다. 성균진사(成均進士)에 이필성(李必盛)이 과거에 합격하여 화짓대를 꽃고 석달 열흘 잔치를 벌였던 것에 연유하여 화지골이라 부른다 전한다. 한편 김해김씨 문중에서도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화짓대를 꽃았다 하며, 도산서원장(陶山書院長)을 지냈다 전해진다. 셋뚝에 있는 정치인 이기택 씨 생가 앞에 있는 회화나무 당산목에서 연안이씨(延安李氏) 신위를 모셔 놓고 정월보름날 동제사를 지낸다.

5) 용두리(龍頭里)

청하천의 하구인 용산 머리 북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새마을(1리), 새터, 오두, 허후리(이상 2리)와 같은 자연부락과 화지동 일부를 합하여 1914년 용두리라 하였다. 2010년 이후 이 일원에 철도역이 들어설 계획이라 한다.

● **용산리**

용산기슭에 자리했던 마을인데 새마을을 일구어 모두 이주해 버리고 지금은 전답(田畓)으로 변해있다. 고인돌 4기가 있다.

● **새마을·새마리**

용산리가 이동하여 일군 새마을이다. 해변엔 풍광 좋은 조경대(釣鯨臺)가 있는데 옛날 조선조 때는 정자(亭子)가 있어 이곳에서 백일장(白日場)이 열리기도 했었다. 4년마다 삼진날 양씨(襄氏)터주와 유씨골목 신위에 제사를 드린 후 별신(別神)굿을 했다.

● **새터·신기동(新基洞)**

월포초등학교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오두리의 이좌도(李座道)가 명당터를 찾아 이사를 와서 개척한 마을이다. 후에 서씨(徐氏)가 이주하여 무과에 급제하니 이씨는 오두리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 **허후리·외휘리(外揮里)·외휘라리(外揮羅里)**

중휘리(월포 3리) 남동 해변 마을로서 개포(介浦)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을 때 외곽수비대의 지휘소가 있었다 하여 불리게 된 지명이라 전한다.

● **오디·오두리(鰲頭里)**

강성산(江城山, 150m) 동편 산기슭에 10여 호 남아 있는 마을이다. 조선조 중엽에 이르기까지 12우물을 먹는 현내(縣內) 연안 최대의 부촌(富村)이었고, 서당이 있었다 한다.

영천이씨(永川李氏)와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세거하면서 효우(孝友) 이원량(李元良)과 오암대사(鰲岩大師)를 배출시켰고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어린 시절 한때 여기서 자라면서 서당을 다녔다하여 이 세 인물을 오두삼성(龍頭三星)이라 불렀다는 구전이 있다.

6) 월포리(月浦里)

월포만(月浦灣)을 끼고 있는 본면(本面) 연안 최대의 마을이다. 근년에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여름 한철 크게 붐빈다. 1리는 적은포, 2리는 개포(介浦), 3리는 월아구(月牙丘)와 중휘리(中揮里)를 합친 마을인데, 1914년 월아구의 ‘월’자와 개포의 ‘포’자를 취하여 월포라 이름하였다.

● 적은포·소구포(所丘浦)

월포천변(月浦川邊) 월현산(月峴山, 月來山·다래산·달애산·달래산, 해발 106m, 대보름달이 덕성(德城)에서 보면 이 산마루에 돌아 뜬다)남쪽 산기슭에 형성된 마을이다. 서쪽 논들에는 고인돌 1기가 남아있다.

● 낮개·개포

청하천과 월포천(月浦川)이 날라 온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육지와는 셋강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진 새터에 신라 때 수군만호진영기(水軍萬戶鎭營基)가 설치되었던 마을이다. 정월보름에 동제사를 지낸다.

● 들막·달래두들·월아구

고인돌군으로 추정되는 큰 어금니모습의 바위들이 있는, 달이 뜨는 언덕이란 뜻으로 불려지는 마을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 바위들은 없어졌으며, 마을 역시 동쪽언덕 아래로 이동하여 버리고 언덕은 논으로 변모하여 왔다. 300여 년생 팽나무당산목이 있고 구월 중기에 동제를 지낸다.

● 중휘라리·중휘리(中揮里)

수군만호(水軍萬戶)가 개포에 있을 때 이곳에 중군(中軍) 지휘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월포초등학교 동편 늪지는 옛날 청하천이 흐른 지역이며, 이곳에서 화살촉과 칼 등의 병기류(兵器類)가 출토되었으며, 고인돌로 추정되는 입석(立石) 1기도 남아있다.

7) 방어리(方魚里)

다래산 동편 산기슭에 자리한 어촌으로서 처음 마을이 형성된 곳은 서편 언덕배기 제당이 있는 주변이라 한다. 마을 어귀 해변의 큰 바위가 말갈다 하여 말바윗골이라

불렀는데 방어가 잘 잡히는 현 위치로 마을이 이동하게 된 후 방어진(方魚津)이라 부른 데서 방어리라 불리게 되었다. 영일정씨(迎日鄭氏) 터주에 월성이씨(月城李氏) 골메기 신위를 모시고 동제사를 올리는데 정월과 구월에 두 번 지낸다. 국립수산진흥원 영일수산종묘배양장이 있고, 방어리침례교회가 있다.

8) 이가리(二加里)

1914년 백암동(白岩洞)과 이기로포(二岐路浦), 그리고 소동(蘇洞)과 청진(靑津)의 일부를 합하여 이가리라 하였다.

● 백암동(白岩洞)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마을인데 바다가 멀어지면서 대부분이 바닷가로 이주하고 소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원래 마을보다 서쪽 산록으로 옮겨서 정착해 있다. 도씨(都氏)와 김씨(金氏), 서씨(徐氏)가 세거하였던 마을로서, 백암이란 이름은 주변 암반층이 이암층의 흰색에 연유하거나 혹은 형제바위 앞 물새 뚝으로 희게 된 백암이 보이는 언덕에 마을이 처음 현성되었기에 연유한다고도 한다. 서편 언덕 위엔 황새마을이란 작은 촌락이 있었는데 이는 송림 속에 황새가 깃들은 데서 연유한다.

● 이기로포(二岐路浦) · 이기로진(二妓老津) · 이가리(二哥里)

옛날 두 기생(妓生)이 청진과 백암의 갈림길에 터를 잡고 늙도록 마을을 개척하면서 살았다 하여 지어진 지명이라 전하기도 하며, 도씨와 김씨 두 가문이 길을 사이로 하여 각각 집성촌(集姓村)을 일구었는데 차츰 번성하면서 서로 합하여 한 마을이 되었다 하여 이가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9) 청진리(靑津里)

월포만 남단 해안 돌출부위에 형성된 어촌마을로서 3리인 보리진은 흥해읍의 오도리(烏島里)와 경계를 이루며, 마을 남서쪽에는 옛 봉화산(烽火山)인 묵은봉(舊烽山, 해발 104m)이 있다. 1914년 대곶이(1리)와 흥해군의 푸나리(2리), 보리진(3리)을 합하여 청진이라 하였다.

● 대곶이 · 죽곶(竹串)

바다쪽으로 뾰죽이 나온,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다. 50년 전까지는 마을 앞 해변에 있는 장군바위에서 동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은 마을 제당에서 달성서씨(達城徐氏)터주와 김해김씨 골목신위에 구월 중기에 지낸다.

● 푸나리(靑津)

원래는 서편 골짜기 송림 울창한 곳에 있었으므로 송정리(松亭里)라 했었는데 바닷가로 이주하여 푸른나리, 푸나리(靑津)라 이름을 바꾸었다. 동제사는 영신당(靈神堂)에서 김해김씨 터주와 월성최씨 골목신위를 모시고 해마다 두 번씩(정월보름과 구월중구) 지내고, 5년마다 별신굿을 해 오다 2007년에 폐지되었다 한다.

● 보리진·포이포(包伊浦)·포위진(包圍津)·모진(牟津)

임란 때 왜적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는 구전(口傳)도 있으며, 보리가 잘되는 어촌이었다는 설도 있다. 안동권씨(安東權氏)와 김해김씨가 세거하였다.

10) 신흥리(新興里)

본 면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옛날 호수지역이라 한다. 청하군의 동면(東面) 지역으로서 1914년 소동(蘇洞)의 일부와 흥해군 검단동 일부를 변현(蕃峴)에 병합하여 신흥리라 하였다. 원래 마을의 중심인 변현(蕃峴)은 뒷산 산기슭에 있었는데, 칠포가 수군만호의 진기(鎭基)가 되어 번창하게 되자 인근 마을인 이곳도 마을 앞 평지로 이동하여 신주택지(新住宅地)가 형성되니 신흥(新興)이라 불렀다 한다. 변현은 그 산 꼬리의 모습이 되돌아 곱어 있는 고로 반현(反峴)이라 불렀는데, 훗날 변현이라 고쳐 불렀다 한다. 이 마을 남서쪽 산록, 서낭재로 가는 길목에 문둥골이 있는데 나환자의 발생으로 폐촌(廢村)되었다 한다. 솔등에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청하입향조(清河入鄕組) 제단각(祭壇閣)이 있다. 마을 남쪽 북골(北谷)에는 오좁바위가 있어 눈병에 좋다는 약수(藥水)가 오좁 누듯 흘러나온다. 이 주변 바위에 윗관 성혈이 있다. 남서쪽 서낭재 꼭대기에는 고인돌 4기(基)가 있다. 구월 중기에 160여 년생 소나무 당산목(堂山木)이 있는 제당에서 동제사를 지낸다.

11) 소동리(蘇洞里)

청하의 조산(朝山)인 용산(龍山, 203.3m) 남쪽 산기슭에 자리하며 범바우, 손등, 지릿골과 까치곡 일부를 합하여 1914년 소동이라 하였다. 범바우마을 서편 소동천변에는 100여m에 걸쳐 옛 숲의 일부가 남아 있다.

● 손등·소동(蘇洞)

마을 지형이 손등 같은데서, 혹은 소의 등과 같다하여 손등·소등이라 하던 것을 한자표기로 소동(蘇洞)이라 했다 한다. 마을 남쪽엔 둔전(屯田)이 펼쳐져 있는데 조선 조 때 둔전이 있었다. 창의대장 김진규(金鎭奎) 의사의 출생지이며 공(公)의 묘는 가라현(加羅峴)에 있다.

● **범바우**

이 마을 동편 산록에 범 모습의 큰 바위가 있으며, 이 바위가 묻히면 이 마을이 쇠퇴하고 노출되면 소동이 쇠한다 하여 두 마을 간에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작현천(鵲峴川)이 이 마을과 청하초등학교 남부분교 사이를 흐른다. 동제는 유뚝날 500년생 노송에서 지냈는데 사라호 태풍 때 도복 고사하여 400여 년생 모과나무에서 다시 이어지내다가 근년에 폐지되었다.

● **까치골**

고현교(古縣橋) 주위에 위치하며 까치고개의 전설에 유래하여 까치골이라 부른다. 옛날의 주막촌이 있던 지역이나 지금은 1호가 남아 있고, 이 일원에는 돌방무덤(石室古墳)이 있다. 옛길은 여기에서 땅골로 이어졌다 한다. 철교가설을 위해 뚫은 까치곡굴이 있다.

● **지리골 · 지례곡(知禮谷)**

손등 북쪽마을이며 이암층의 풍화지대인지라 비가 오면 몹시 질척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지례곡은 한자식 표기이다. 최근 이가리로 연결되는 2차선도로가 개설되어 공장과 식당이 상당수 들어섰다. 이 마을 뒤 용산(龍山) 자락에 수십 기의 돌방무덤(石室古墳)이 있다.

12) 고현리(古縣里)

까치고개(鵲峴)와 별래재(別乃峴·星峴, 壯者峯 181m)를 잇는 7번국도의 서편 일원에 고현1리와 2리(下坊, 梨長谷, 梨谷)가 있다. 1914년 네 개의 자연부락을 합하여 중심부락 이름인 고현(古縣)으로 통칭하였다.

● **고현 · 고청하리(古淸河里)**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후 해아(海阿)라 개칭하고 화방(花芳)의 앞뜰에 토성을 쌓아 현기(縣基)를 옮겨와 수백 년을 지내다가, 고려 현종조에 덕성리로 옮겨가니 그 자리 부근에 형성된 마을을 화방(花芳)과 구분하여 고현(古縣) 혹은 고청하리(古淸河里)라 부르게 되었다.

● **하방(下坊) · 화방(花芳) · 하방(河芳) · 하방(河坊)**

배골에서 흘러내리는 하방천이 이 마을 중심을 흐르며, 옛날에는 이 안골짜기로 배나무 또한 많았던 고을이라 배꽃 만발한 풍경을 보고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배골·이곡(梨谷)·이화동(梨花洞)

매봉(172m)과 달봉산 사이의 배나무밭이 많았던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고려 때 남계부곡(南界部曲)이 있었다. 인조(1628)때 부제학(副提學) 류숙(柳瀟)이 송라 학산(鶴山) 마을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7년을 살다가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재등용되어 떠났으며, 달봉산 북쪽에는 당시 밤낚시를 즐기며 노닐다가 밝은 햇불의 정취에 감탄하여 류숙이 못 이름을 지었다는 어화지(漁火池)가 일부 남아 있어 못안못이라 부른다.

● 이장곡(梨長谷)

고주산(高柱山, 해발 348m, 고주봉산(高柱烽山)이라 했으며 내륙으로 연결되는 봉화산(烽火山)이었다. 동편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하며, 1958년 만수면적(滿水面績) 8.46ha의 고현지(古懸池)가 축조되어 있으며, 배나무 밭이 많고 골짜기가 깊은 산촌마을이다.

13) 하대리(下大里)

청하천 남쪽에 넓은 들이 있어 한들이라 부르며, 그 아래쪽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아래한들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대리(下大里)로 통칭하였다. 앞 들에 조선조 영조대(英祖代) 현감 한우창(韓羽昌) 재임시 축조한 한들못이 있고 앞산 등너머에 왓골, 그 너머에 살알, 암자가 있었다 하여 불의동(佛義洞)이라고도 불리는 불뫼골이 있다. 명안리에 안심지(安心池)가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붓물과 한들못에 만 의존하여 소량의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주로 밭농사에 의존하여 살아온 마을이라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말 먹기 어렵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가뭄을 많이 타는 들이란 뜻으로 한(旱)들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정월보름에 마을남쪽 들녘에 있는 제당(당산목은 200년생 적송)에서 어진 골목님네 신위에 동제사를 지낸다. 앞산 까치고개 서편 일원에 1990년 농공단지(50,000여평, 20개 업체 수용)가 조성되었다.

14) 상대리(上大里)

붓갓산 동편 기슭 청하천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70여호가 사는데 김해김씨와 월성김씨(月城金氏), 영일정씨(迎日鄭氏)가 많이 산다. 마을 북쪽에는 상대숲이 일부 남아 있고, 한때 하천변 제방을 따라 30ha 두산포도원이 1974년에 설치되어 마주앙 포도주의 주원료를 생산했었다. 웃한들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식 표기에 따라 상대평(上大坪)이라 했는데 1914년 상대리로 하였다. 왓골(기와굽던 곳, 와곡), 따복골, 소등골과 같은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한다. 동제는 연일정씨 터주 김해김씨 골목 신위에 200년생 소나무 당산목에서 정월보름에 지낸다.

15) 서정리(西井里)

청하의 진산인 호학산(呼鶴山)의 주맥(主脈)이 남동쪽으로 달리다가 우족산(牛足山) (가로질산이라고도 부른다)에 이르러 큰 혈을 이루었는데 그 남쪽 산기슭에 금호(金湖), 감정(甘井), 밤나무지이, 모과정과 같은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합하여 1914년 서정리라 하고 1, 2, 3리로 나누었다.

● 금호(金湖) · 금정(金井)

아해현기(阿兮縣基)가 있던 마을로서 신라가 점유하여 화방으로 현기를 옮겨갈 때까지 이 지역의 중심 마을이었다. 옛날 달골에는 금광(金鑛)이 있었고, 마을 북동 산골짜기에 금씨골이란 지명이 있고, 마을어귀 샘에서 장님 오빠와 물을 먹다가 금덩이를 샘 속에서 발견하고 놀라 소리치는 통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전설 등으로 미루어 이 지역에 금이 토출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금정리(金井里)란 지명은 이에 유래한 것이며, 금호동(金湖洞)이란, 성지비결(性智秘訣)에 ‘물 위에 뜬 금바가지 형국’의 혈(穴)이었다고 한 데서 연유한다.

● 감정리(甘井里)

30여호의 작은 마을로서 물맛이 좋은 샘이 있어 감정리라 하였다 한다. 이 마을 서편 도로변에는 임란 때 곽재우 장군을 따라 출전하였던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 김득경(金得鏡) 의사(義士)와 그의 아들 문룡(文龍) 의사의 묘단비(墓壇碑)가 있다.

● 모과지이 · 목과정(木瓜井)

감정리, 밤나무지이와 더불어 서정2리에 속하는 마을로서 400여 년생 모과나무 당산목 곁에 샘이 있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며, 정월보름날 동제를 감정리와 더불어 달성 서씨 터주 신위와 동신위에 지낸다.

● 밤나무지이 · 울전(栗田)

시지골 안골짜기에 접어들면 언덕위에 30호 정도 사는 마을이 있는데 밤나무가 많았을 때 붙여진 지명이다. 이 마을 북쪽 골짜기 건너 사실못 남쪽 옛 용지(龍池)마을터에 제당이 있어 덕성2리와 합동으로 정월보름날 산신령과 담양전씨(潭陽田氏), 황주변씨(黃州邊氏) 터주에 월성최씨(月城崔氏) 골목신위에 제사를 지내오다 폐지되었다.

16) 명안리(鳴安里)

옛재 북쪽으로 트인 골짜기에 형성된 안심(安心), 명암(鳴岩), 점말과 같은 마을을 합하여 1914년 명안리라 하였고 1, 2리로 나누었다. 마을 어귀에 있던 월성이씨 문중

(門中)묘역인 안심숲을 베어내고 1971년 유역면적 850ha의 안심지(安心池)를 축조하였다. 이에 배바우 마을도 이주하고 2호만 남아 있다. 배바우는 도로 확장으로 상당부위가 묻혀 버렸다. 옛날 이곳에 바닷물이 차 있을 때 배를 정박하던 곳이었다 한다. 고려때 간천부곡(干川部曲)이 있었다.

● 명암리(鳴岩里)

마을 서편 1km 거리에 초가삼간 크기의 움푹 패인 구멍바위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밤중에 얼음장이 깨지듯이 울었다 하여 불리운 지명이다.

정월 보름날 300여년생 떡갈나무 당산목에서 달성서시 터주와 남평문씨 골목신위에 동제사를 지내 오다가 근년에 폐지되었다. 아주신씨(鵝州申氏)와 월성김씨(月城金氏) 세거(世居)마을이다.

● 안심리(安心里)

40년 전까지 안심 숲이 마을 앞을 가로막아 있어서 외부에 마을이 노출되질 않아 잦은 왜구의 침입이나 전란에도 안심하고 숨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안심리라 불렀다 한다. 이 숲은 청하 세거 월성이씨 입향조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역이었는데, 이 문중산소를 가로질산으로 이기하고 축조한 안심지 만수 때엔 마을 앞에까지 못물이 출렁인다.

● 점마을

옛재로 넘어가는 길가에 형성된 마을로서 예부터 옹기굴(옹기가마)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정월 보름날 300여 년생 적송 당산목에서 김해김씨 터주 신위에 동제사를 지낸다. 1990년대에 이르러 도로가 확 포장되면서 옹기굴은 사라지고 식당들이 들어서고 있다.

17) 유계리(柳溪里)

청하천의 발원처인 궁곡(弓谷)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을 따라 덕성산(德城山)과 호학산(呼鶴山)의 줄기가 형성한 큰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유치이, 황배이, 서계와 같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1914년 유계리라 개칭하였다. 상옥으로 가는 샘재 굽잇길이 2리인 서계 마을을 돌아간다.

● 유치이(柳川)

마을 앞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다고 ‘柳川’, 마을 윗돔에 흘러넘치는 샘이 있어 ‘流川’이라 하니 이에 연유하여 ‘유천리’라 불렀다 한다. 이 마을 북쪽으로 활 모양의 계곡이 펼쳐지는데 활골(弓谷)이라 부른다. 고구려와 신라가 대치할 때 신라군의 궁노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1999년 유계지 착공되면서 2004년 이 일원이 수몰지역이 되어 덕성리와 미남리로 이주하였다. 용두현으로 오르는 동북 언덕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지관(李智冠) 스님의 탄생지가 있다.

● 황배이·황암리(黃岩里)

황배이골 어귀의 바위가 누른색인데 연유한 지명이다. 월성최씨(月城崔氏) 집성촌으로서 근년에 축조 중이던 황암지(黃岩池) 터에는 조선조에 이동신공(李東信公)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서 한 때 비스무스 광산이 있었다. 여기서 골짜기 깊이가 들어가면 상사(相思)바위 입구 기암절벽 사이에 성문(城門)과 같이 트인 곳이 있어 왜명동(倭鳴洞)이라 부른다. 임란 때 이 안골에 피난하고 있던 주민들이 이곳에서 왜병을 돌과 바위로 무찔러 쫓으니 울며 도주했다하여 왜명동이라 불렀다 전해진다.

● 서계리(西溪里)

이 고을의 서쪽 계곡에 있는 마을이며, 조선 명종(明宗) 원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황해감사(黃海監司)로 있던 윤상문(尹尙文)이 이 고을에 유배(流配)되었을 때 지은 지명이라 전한다. 마을 앞 하천에 돌이 누적되어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리니 일명 건천동(乾川洞)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 북쪽에 7호 정도 살고 있는 중리(中里)라는 작은 마을이 있고, 그 안골짜기 월곡(月谷)에 금광이 있었다 한다. 마을 동편 하천변에는 오리(五里)에 뻗친 풍치림(風致林)이 있었는데 일제말기에 자력갱생사업의 명목으로 대부분이 벌채 개간되고, 1천여 평에 50여 그루의 노거수(老巨樹)가 남아있다. 이 마을 남쪽 들에 1917년 건립된 유계교회가 있고 서편 대밭 아래에 윤백주(尹百冑)와 그의 자 윤빈(尹賓)을 기리는 상덕사(尙德祠)와 죽림사(竹林祠)가 있다.

18) 청계리(淸溪里)

천령산(天嶺山)에서 발원한 물이 안청계리 쪽으로 한 가닥, 바깥청계 쪽으로 한 가닥 흘러내려 삼송리를 지나 월포 바다로 빠진다. 천령산은 원래 신구산(神龜山)이라 불렀으며 이 산의 중턱에는 상태사지(常泰寺址)가 있고 원각조사의 부도도 있었다 전한다. 호학산(呼鶴山)은 청계도사(淸溪道士)가 학을 불러서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청하의 진산(鎭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산의 위치와 형태의 특성상 백리두들과 서정리 금정마을에 걸쳐 자리하는 야산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가 세력다툼을 할 때 격전지로 도끼재, 거진령(去陣嶺), 호학제(呼鶴堤), 백리두들(百里田原), 용잠이등골(龍臥嶺), 거진등곡(陣嶺谷) 같은 지명이 전한다.

● 안청계·내청리(內淸里)

도끼재 동편 10여 호 사는 산촌이다. 영천이씨 재실(永川李氏 齋室)이 있고 마을 어귀 팽나무 당산목 아래 제당(祭堂)에서 정월보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터주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호룡골 못이 있고, 1999년 확장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아래 작은 저수지를 1988년 하나 더 축조하였다.

● 바깥청계·외청리(外淸里)

원래는 개천 건너 언덕에 있었는데 뱀(또는 지네)의 극성으로 이주하여 현 위치에 마을을 일구었다 한다. 맑은 냇물이 사시장천 흐르는 지역이라 하여 청계(淸溪)라 불렀다 한다. 현재 70호 정도 살고 있으며 쌀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이다. 청안이씨(淸安李氏) 가문에서 이순창(李淳昌) 의사(義士)가 배출되었으며 마을 북서쪽에는 서포선생(西圃先生) 숭봉지처(崇奉之處)인 서포정(西圃亭)이 있었고, 마을 속에 청안이씨(淸安李氏) 재실 청학정(淸鶴亭)이 있다. 이 마을 동편에 청계숲이 있으며, 2007년에 노거수회의 주선으로 숲을 정비 무육하여 쉼터를 조성하였다. 400년생 느티나무 노거수 다섯 그루가 남아 있다.

4. 송라면(松羅面)

1) 상송리(上松里)

천령산이 시원인 월포천이 청하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이 마을 앞을 흐른다. 송림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세 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위에서부터 차례로 상송리, 중송리, 하송리라 부르며, 세 마을을 통틀어 삼송리(三松里)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송, 중송을 합쳐 상송리라 하고, 행정동명으로 상송은 상송1리, 중송은 상송2리라 한다.

조선 초기 송라도찰방(松羅道察訪)이 덕천리에 설치되니 이 마을이 역촌으로 번성하게 되었으며 상송리는 외이동(外二洞), 중송리는 외일동(外一洞), 하송리는 외삼동(外三洞)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찰방의 바깥에 형성된 마을이란 뜻이라 한다. 당초에는 중송리가 남쪽 냇가에 있었고, 그 북서쪽에 상송리가 있었는데, 내청계(內淸溪) 호룡골 못이 터지는 큰 홍수를 당한 연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나오게 되었다 한다. 마을 뒤 성뚝들에는 봉화를 올리는 작은 인조 토산이 세 개 있었는데 해방 이후 제거되었고, 이들을 건너 1.5km 골짜기로 찾아들면 성도지(成道池)가 있고, 그 안골 둔덕에 나대의 절터인 성도암지(成道庵址)가 있는데, 일제 때 원각조사(圓覺祖師) 비가 출토되었다. 조선

시대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유숙(柳瀟)이 이 절에서 수도했다고 전한다. 최근 이 일원에 골프장이 들어섰다. 마을 주위의 숲은 일제말기 자력갱생 사업이란 명목으로 거의 다 벌채, 개간되었다. 1리는 남평문씨(南平文氏) 터주와 김해김씨 골목신위에, 2리는 월성김씨 터주와 파평윤씨 골목신위에 정월 보름마다 동제사를 지낸다.

2) 하송리(下松里)

삼송리의 동편에 위치하며 7번국도변에 찬샘이, 별장촌이 있고, 중송리에 연결된 원래의 하송리에는 90호 정도 살고 있다. 삼송리 중 맨 아래 있다고 하송리라 한다.

세조 4년(1458) 화산(花山) 일원에 있던 송라역이 이 지역으로 옮겨오고, 관동(館洞)에 찰방이 주재하면서 인근 7읍의 역을 관장케 했을 때 크게 번창했던 마을로서 오역(午驛), 외역(外驛), 혹은 외삼동(外三洞)이라고 불려오던 마을이고, 일명 만성(蔓城)이라 부르던 곳이다. 현재의 위치보다 북쪽에 위치했는데 홍수로 인하여 하상(河床)이 이동되고 수질이 나쁜지라 남쪽으로 서서히 옮겨 앉게 되었다. 찬샘이 마을은 달애산 서편 두사리가 시원지이며 역촌이 형성되면서 서쪽으로 300~400m 이주해온 것이라 전한다.

고종 32년(1895) 내북면에 속했을 당시에는 북면 사무소가 있었으며 숲을 제거한 공터에는 5일장이 3일, 8일에 서곤했다. 하송에서는 남평문씨 터주와 월성김씨 골목신위에, 찬샘이는 파평윤씨 터주와 월성최씨 골목신위에 두사리라는 옛 마을 터 숲속 제당에서 각각 정월보름마다 동제사를 지낸다. 삼송리의 지형이 배 같다 하여 뚝대의 상징인 짚대를 마을 가운데 세워두고 있으며, 배는 바다를 향해 떠나려간다는 이론에 의하여 바다 쪽을 숲으로 가려뒀는데 200수년 전 안청계리 호룡곡(虎龍谷)의 저수지가 홍수로 붕괴하였을 때 이 숲으로 인하여 슬한 생명과 곡식더미를 건졌으므로 일명 ‘식생(食生)이 숲’이라 부르고 있다. 이 숲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부사과 윤기석(副司果尹琦碩)의 처 청풍김씨 설보여인이 천냥의 거금을 희사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이 숲의 북쪽 언덕 비탈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워두었다. 한때 도역(道驛)으로서 크게 번성하였던 곳인데 옛 모습은 간 데 없고, 마을 동편 숲 속에 이 숲을 조성한 청풍김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여인의 숲’ 기념비를 2003년 노거수회가 주관하여 세워두었다. 1914년까지 여제단(厲祭壇)이 있었고, 찬샘이 마을에는 밀알기도원, 포병부대가, 7번국도 동편으로 포항스틸러스 체력단련운동장이 들어섰다.

3) 중산리(中山里)

신구산(神龜山, 776m, 현재 天嶺山)과 종남산(終南山)이라고도 불렀던 내연산이 마주하여 만든 깊고 아름다운 계곡 어귀에 중리(中里), 학산(鶴山), 덕곡(德谷)과 같은 자

연부락이 있다. 계곡 깊숙이 12폭포를 거슬러 오르면 시명리(時明里), 삼거리, 십양리, 산두곡, 뽕밭과 같은 작은 화전민촌들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 모두 철거되었다. 산남 의진 정환직대장이 뽕밭(角田)에서 피신하고 있던 중 일현에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뽕밭은 불밭, 즉 화전(火田)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 훗날 뽕밭으로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각전(角田)으로 잘못 기록하게 되었다

● 중리(中里)

300여 년 전 형성된 마을이며 북쪽에는 북리(北里), 동쪽에는 동하동(東下洞)이란 마을이 있었고, 그 중간에 위치한다 하여 중리라 했다 한다. 마을 남서쪽에 기우제를 지내던 건지봉(乾止峰, 346m)이 있는데, 사혈(巳穴)이라 ‘뱀 기운’을 누르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돈상(豚像)을 세워 두었다. 산신과 월성이씨 골목신위에 정월보름날 동제를 지낸다.

● 학산(鶴山)

숙종 18년(1692) 해남현감을 지낸 김석경(金錫慶)이 주선하여 은사(恩師) 회재선생 숭봉지처(晦齋先生 崇奉之處)로 학산서원을 건립함에 따라 점점 크게 형성된 마을이다. 하천 주변의 지형이 학을 닮은 데서 연유한 지명이라 전한다.

● 덕곡(德谷)

보경사 경내에 형성된 마을로서 절의 덕을 입고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불리어진 지명이라 한다. 흔히 ‘보경마을’이라 부르며 10년 전에 건립된 대련암(大蓮菴)이 있고 그 앞 도로변에 기미 3.1독립의거기념비가 있다.

보경사 창건 때 사찰을 보안하기 위해 쌓은 성벽이 있던 일원에 1988년도 신 상가와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절문 앞에는 700여 년생 회화나무(15×6.2×13m) 한 그루가 있었는데 2004년 도복 고사하였으며, 담 안 소재 도지정기념물 11호인 200여 년생 탕자나무 두 그루가 있다.

4) 광천리(光川里)

내연산과 천령산이 이루는 깊은 계곡 물이 마을 앞을 흐르며, 광흥리(光興里, 3리) 뒤에는 산머리에 샘솟는 웅덩이가 있어 고기가 뛰놀았다는 어유산(魚遊山, 126m)이 있다. 서쪽으로부터 1리인 하광(下廣), 2리인 안동네, 3리인 광흥이 자리하고 있다. 하광 서편에는 상광이 있었는데 수질이 나빠 피부병 발생이 많아져 폐촌되었다. 본면이 청하군의 북면에 속할 때에는 안동네에 내북면 사무소가 있었는데, 1914년 광흥동으로 이전하면서 세 마을을 통틀어 광천리라 하였다.

● **너분걸·광천(廣川)**

넓은 개울이란 뜻인데, 내연산 계곡에서 급류하던 하천이 이 마을 앞에서 넓게 퍼져 흘렀으므로 불리어진 이름이다.

● **하광리(下廣里)**

광천 1리를 말하며 감나무골이라고도 한다. 마을어귀 송림 속 제당에서 정월보름에 지씨(池氏)와 용씨(龍氏)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안동네**

광천3리에 새마을이 형성되면서 안동네로 호칭되었다 한다. 1909년 건립된 송라침례교회가 있다. 밀양박씨, 김해김씨, 수원백씨가 대부분이다. 정월보름이면 면사무소 뒤 400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에서 파평윤씨 터주와 영해남씨(寧海南氏) 골목신위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 **광흥동(光興洞)**

현 본면 중심마을로서 각종 관공서와 초중등학교가 있다. 1918년 하송리에 서던 시장을 주막집 한 채 뿐이던 이곳 장터걸로 옮겨오고 1956년 5월 20일 면사무소를 건축하고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보경사 동로전(東廬殿)에서 개강을 했던 사립학원 광흥학교(廣興學校)가 이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광흥동(廣興洞)이라 했는데 훗날 ‘光興洞’이라 표기했다 한다.

5) 조사리(祖師里)

다래산 북동 해안에 형성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방화동(芳花洞)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고려말 원각조사(圓覺祖師)가 태어나 살던 마을이라 하여 조사리라 불리어졌다.

조사의 생가 터에는 1913년 12월 2일 평양신학교 출신 허담(許臚) 목사가 조사리침례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16년에는 교회 내에 진명사립학원(進明私立學院)을 설립, 4년제로 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광흥국민학교가 설립되자 흡수 폐교되고 교회는 장로교파가 인수하였다 한다. 그 후 허목사가 귀향하여 다시 교회를 인수하고 교회이름을 구우정교회(九友亭教會)라 했는데, 1972년에 다시 장로교파에서 인수하여 동천장로교회(東天長老教會)라 하였다.

이 마을 북서쪽 언덕배기에는 김해허씨의 9형제가 세웠다는 구우정(九友亭)의 흔적으로 작은 명비(名碑)가 남아 있고, 그 부근에는 일제시에 성도암지에서 발굴된 원각조사 비가 옮겨 세워져 있다. 마을 포구에는 원각조사 탄생설화가 담긴 부부 용바위

가 있었는데 10여 년 전 주변을 콘크리트로 뒤덮으면서 암용 바위는 파손되었다. 남아 있는 솟음 바위에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정월보름에 북서쪽 송림 속에 있는 제당에서 평해황씨 터주, 김해허씨 골목신위와 원각조사신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6) 방석리(芳石里)

어유산과 천마산(天馬山) 사이에 만수면적 19.48ha 용곡지(龍谷池, 조선조 중엽에 축조, 해방 후 증축)가 있으며 이 물로 이 마을 앞들을 수리안전담으로 일구어 두었다. 1914년 방화동과 독석(獨石)마을을 합하여 방석이라 하였다.

● 방화(芳花)

마을 북동쪽 봉화산인 도리산(桃李山)이 바위산인데다 옛날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가 많아서 꽃이 필 때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마을 이름을 방화라 했으며, 조선조 때 이 고을 현감은 보경사와 조경대(釣鯨臺), 그리고 이곳 도리산의 춘경을 필히 찾아 노닐었다 전한다. 원 마을은 뒷산록에만 형성되어 있었는데 남쪽으로 확산되었으며, 정월보름에 도리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 제당에서 순흥안씨 터주와 과평윤씨 골목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 독석(獨石)

마을 앞 바닷가에 검고 널찍한 큰 바위가 하나 외로이 있어 마을 이름을 검은돌, 탄돌, 독석이라 부른다. 한때 나포리라 부르기도 했으며, 백사장에 시장이 섰으므로 한불장터란 지명이 남아 있다.

마을 서편 어귀에 치성바위인 성혈식(性穴式) 고인돌 ‘애기방우’가 있으며 부근에 여러 개 산재하던 고인돌은 축항공사 때 깨어 썼는데 석공이 황사하는 변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윗 등 당산숲 속에 제당에서 정월보름에 산신과 동신, 그리고 창조류씨(創祖柳氏) 터주신위를 모시고 동제사를 지낸다. 북동 해변에는 1966년 건립된 5인 해병 순직비가 있으며, 주변 해안은 상륙작전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7) 화진리(華津里)

천마산(天馬山)과 도리산(桃李山, 봉화산(烽火山), 104m)북동 기슭에서부터 해안에 걸쳐 형성된 마을로서 이진(耳津), 대진(大津), 화산(花山)과 같은 자연부락이 1, 2, 3리로 각각 형성되어 있으며, 1914년에 화산(華山)의 ‘華’자와 구진 대진의 ‘津’자를 택해 화진(華津)이라 이름 하였다.

● 이진(耳津)

마을 앞 포구에 거북모양의 바위가 있어 구진(龜津)이라 부른다 하며 한편으로는 포구의 끝이 귀(耳) 같다 하여, 혹자는 구진이 귀진으로 발음되면서 한자표기를 ‘귀 이(耳)’자로 표기했다고도 한다. 바닷가 거북 바위에서 40여 년 전까지 동제를 지내왔다. 정월보름에 제당에서 월성최씨, 달성서씨, 파평윤씨 세 골목신위를 모시고 동제를 지내며, 이 날 낮에는 여인들이 얹은줄당기기를 한다. 옛날 도리산에 봉수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에는 도리포라 부르던 곳이며, 88서울올림픽 탁구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유남규 선수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 대진(大津)

송라역이 도리산 서북쪽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을 때 원산과 동래 등지를 오가는 선박들이 정박하면서부터 마을이 동쪽 바닷가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원래는 서피진(西皮津)이라 부르던 것을 대진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한다. 1910년에 건립된 화진침례교회가 있고 바닷가 제당에서 정월보름에 원씨 터주와 심씨(沈氏) 골목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 화산(花山)

화산(華山), 고송라(古松羅), 학교마을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이는 이 마을 동편 모래 언덕과 백사장에 해당화와 순비기, 갯매꽃 등 꽃이 많은 데서 연유한다. 해발 75m의 천마산(天馬山) 북동 산자락에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성뚝들이 있으며, 그 주위에 형성되었던 마을이 바닷물이 차츰 물러감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조선조 초기까지 마을 앞 언덕에 송라역이 있었으므로 일명 고송라(古松羅)라 부른다. 1958년 송라국민학교 화산분교가 설립되자 학교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마을 앞 제당 주위의 전답과 뒷동산 음장고(陰藏庫)라 불리는, 난시에 음식물이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괴석이 있다. 주위 논들은 1900년 초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로 염전을 일구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왜병수송부대가 화산 불 백사장에 상륙 주둔하여 노략질을 일삼는지라 도리산 봉군과 송라도찰방군, 그리고 의병, 주민 등이 봉기하여 대동숲에 운집 대기하고 있다가 야밤에 기습하여 백병전을 치르다 피아가 전멸하다시피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는 얘기가 구전되고 있다. 그 때 죽은 자들을 무더기무더기 묻어둔 작을 골짜기를 ‘씩은송이네고랑’이라 한다.

거센 해풍에 백사(白沙)가 이동하면 유골들이 곳곳에 노출되었다 한다. 일제강점기 때 송라소학교에 부임한 일본인 교장이 야밤에 이곳에서 원혼제를 지냈다 전한다. 이 인근은 육군해양휴양지로 쓰이고 있다.

8) 대전리(大田里)

내연산의 지맥 둘이 동주하면서 한 가닥은 지경(地境)의 해변에 이르고 남쪽 것은 방석(芳石)의 도리산(桃李山)에 멎는데 이 두 산능선 사이에 형성된 큰 골짜기에 산령전(山嶺田), 심방(尋芳, 2리)과 두곡(斗谷, 1리)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다. 남쪽 야산에 최근 골프장이 들어섰다.

1914년에 북동대산(北東大山)의 ‘대(大)’자와 산령전(山嶺田)의 ‘전(田)’자를 따서 큰 들이란 뜻으로 대전리라 이름하여 오늘에 이른다.

● 듄실·두곡(斗谷)

고려말기에 제주강씨가 들어와서 마을을 일구기 시작했고 그 후 순흥안씨(順興安氏)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번성하게 되었다 한다. 이 고을의 들 모습이 ‘두(斗)’자 같다 하여 두곡(斗谷)이라 했고 마을 앞 천변에 듄바위라고도 하고 천보암(天寶岩)이라고도 하는 벼짚으로 엮어 만든 뜰을 둘러친 듯한 바위의 모습에서 뜰실이라 하였는데, 변음되어 듄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3.1만세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숲 속에 3.1 의거기념비가 있고 마을 속에는 청하장터 기미만세운동 모체가 되었던 대전교회(1913년 설립)가 있다. 유적으로는 동편 아룡곡(亞龍谷)에 아룡사지가, 방화지(芳花池) 서편에는 지정(至精)사지가 있고 어사터로 가는 뒷 산길 주위에 석곽고분군이 있다.

● 심방(尋芳)·승방동(升芳洞)

큰 마을인 두곡에 비해 작은 마을이란 뜻으로 승방(升芳)이라 표현했다고도 하며, 봄에 산천에 꽃이 가득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든다 하여 심방(尋芳)이라 불렀다 한다. 고려 때엔 북아부곡(北阿部曲)이 있었다. 마을 어귀 참나무 숲 당산목 아래에 있는 제당에서 정월보름에 산신과 함씨(咸氏) 터주, 김씨 골목신위에 제사를 지오다 근년에 폐지되었다.

● 산령전(山嶺田)

대전리의 서편 산골에 위치하며, 10여 호가 살고 있는 산촌이다. 동남 골짜기에 옛날 삼전(蔘田)이 있어 썩발골(삼발골의 변음)이라 부르기도 했다. 서편 산 중턱에는 내연산 산신 할무당을 모신 신당인 백계당(白啓堂)이 있어 3월 보름에 백계당 송봉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낸다.

9) 지경리(地境里)

이 마을 북쪽은 영덕군과 경계를 이루는 버드내(지경천)가 흐르며 1리에는 지경, 2리에는 어사터와 염전(鹽田)이란 자연부락이 있는데, 1914년 지경리로 통폐합하였다.

● 지경(地境)

청하현과 영해현의 경계에 놓인 땅이라 하여 불리어진 지명이다. 1949년 11월 6일 이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해안에 침투한 무장공비 30명을 사살하였는데, 복귀는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4일 50여 명이 밤 8시 40분 이 마을을 급습하여 주민 99명의 사상자(34명 희생)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에 1985년 6월 25일 검문소 건너편 산기슭에 반공피해살상현장비를 세웠다. 이 산중허리에 애기방우가 있어 치성을 드리면 자식을 얻는다고 하며, 많은 성혈식고인돌이 산록에 산재하고 있다. 동제당에서 정월보름에 엄씨(嚴氏)와 조씨(趙氏) 터주, 골목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 염전(鹽田)

6.25 전까지 300여 년 동안 소금을 구워오던 마을로서 어사터와 함께 2리에 속한다. 해변에는 휴게소와 해수욕장이 있다. 달성서씨 5호 외 15여 호가 살고 있었으며, 동제는 개울 건너 화산 마을에서 함께 지낸다.

● 어사터

어촌인 지경에서 2km 정도 서편에 위치하며, 버드나무가 울창하였다던 버드내 가에 형성된 마을이다. 현재는 웃돛과 아랫돛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옛 마을은 그 사이에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7번국도가 개설되기 이전(원래 송라도로를 수정했다 함) 고려 때의 주도로가 이 마을을 지났다 한다.

5. 기계면(杞溪面)

1) 현내리(縣內里)

두봉산(頭峯山, 237m) 남쪽, 죽장으로 통하는 국도 북편에 형성된 마을로 면청사와 학교, 각종 관공서가 자리하며,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 본 면의 중심지로 1·2리로 구분되어 6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현재 현내1리에 속하는 안마을(內里), 갯빈마을과 현내2리에 속하는 뒤밀마을, 숲각단을 합하여 옛 현기지 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현내리라 하였다.

● 안마을·내리·현내

신라말기에 아찬(阿飡)을 지낸 유삼재(兪三宰, 기계유씨의 시조)공이 낙향하여 살게 된 후 문성동(文星洞)에서 현기(縣基)를 옮겨 왔다 한다.

시장 입구에 있는 팽나무 당산목을 지나 북서쪽으로 200여m 들어가면 옛 현청사

터와 경로당이 있다. 2001년 10월에 신축 이전한 면사무소에는 1828년 탐관오리의 학정에 항거한 박만용(朴萬龍) 유공비와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던 영일군수 김옥현, 박준무의 공덕비와 조선조에 세워진 경주부윤 민영직(閔泳稷), 조명정(趙明鼎)의 선정비가 나란히 서 있다.

● 갯빈마을·갯빈각단·강변마을

강변에 형성된 작은 마을이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문성교가 건설되었고, 둔전(屯田)들에는 벼와 과수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1988년도부터 기계천변 4,000여평의 사유지에 기계면민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 숲각단·임리(林里)

조선 성종 때 성균진사(成均進士)를 지냈던 도원 이말동(桃源 李末叢)공이 기계에 은거하면서 풍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서숲(西藪) 동편에 자리한 마을이다.

서숲은 지금 그 일부가 남아 있으며, 도로변에 1992년에 세운 을미의병장두산이종흡창의비(乙未義兵將斗山李鍾翕彰義碑)가 있다.

● 뒤밀

서숲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인데 기계중·종합고등학교가 있다.

2) 지가리(芝柯里)

죽장면(竹長面), 기북면(杞北面)으로 통하는 국도변에 위치하며 소금실(素琴室), 월리(越里), 지가실(芝柯室)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1914년 이를 통폐합하여 지가리라 하였다.

● 구내·소금실·구천(九川)

뒷산이 거문고 같은 모습이라 소금실(素琴室)이라고 부르며 구곡(九谷) 골짜기의 내를 구천, 구내라 하여 마을 이름도 때로는 그렇게 부른다.

구곡 어귀의 느릅나무 당산목에서 정월보름에 동제사를 지낸다. 구천곡에 월성이씨 구봉공(九峰公)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구봉정(九峰亭)이 있다.

● 너매마을·월리

언덕을 넘어서야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다 하여 월리, 너매마을이라 한다.

● 지가·지가실(芝柯室)

조선조 중엽 김화석이란 선비가 정착하면서 자손들이 지초(芝草)처럼 번성하며 화목하란 뜻으로 지은 마을 이름이라 한다. 1979년 건립된 지가교회가 있다.

● 중리(中里)

지가실 동편마을로서 지가실과 소금실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팽나무와 회화나무 당산목에서 너매 마을과 함께 동제사를 지낸다.

3) 봉계리(鳳溪里)

봉좌산(鳳座山, 589m) 북쪽에 위치하며 이리재를 넘으면 영천시 수성(守城)으로 통한다. 1914년 인비(仁庇)의 일부와 치동(致洞), 동자방(童子房), 선래, 관평(灌坪), 상이(上伊), 하이(下伊)를 합하여 봉계리라 칭하였다.

● 봉좌암(鳳座岩)

봉좌산 꼭대기에 있는 봉황 모양의 바위로 치동의 월성김씨와 관평의 파평윤씨 사이의 성쇠와 관련한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치성드리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봉좌암(일명 탕건바우) 서편에는 50여 명 수용 가능한 굴이 있다.

● 치동(致洞·治洞)·봉계

봉좌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중간에 위치하여 예부터 봉계라고도 불렀다 하며, 1637년 경주김씨 기계 입항조인 일암(逸菴) 김언헌(金彦憲)이 취숲을 치고 마을을 일구었기에 벌치동(伐致洞)이라 하다가 치동이라 불렀다 한다. 서당이었던 남덕재(覽德齋)와 조선 숙종 때 성균관 생원 김계영의 덕업을 추모하여 지은 흔히 분옥정(噴玉亭)이 있다.

● 설내·서천(饒川)

치동 어귀에 위치하며, 고려 공민왕 때 홍수로 황폐해진 전답을 호미(鋤)로 복구하였다 하여 불려진 지명이다.

● 동지뱅이·동자방(童子房)

봉좌산 정상에 큰바위(봉좌암)를 산중턱에 있는 이 마을에서 쳐다보면 동자의 모습 같아 마을 이름이 생겼다 한다.

● 관평(管坪)

남북으로 길게 뻗은 봉계숲의 서편에 위치하며, 파평윤씨 시조 윤신달 태사의 묘와 재실인 봉강재(鳳岡齋)이 있다. 고려말 경주부윤(府尹)으로 있던 태사의 후손이 이곳에 관청을 설치하고 분실된 태사의 묘를 찾았다 하여 관평(官坪)이라 불렀으며, 한편 물대기 좋은 들이라 하여 관평(灌坪)이라고도 한다.

● 붓걸·이동(伊洞)

붓걸은 고속도로 건설로 모습이 크게 변했으며, 윤씨(尹氏)들 집성촌이어서 부른 운동

(尹洞)은 차츰 타성이 이주해 와 ‘인(人)’ 자를 더하여 이동(伊洞)이라 고쳤다. 상이(上伊), 하이(下伊)가 있는데, 상이 서쪽 이리재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임고 4터널이 있다.

4) 고지리(高旨里)

봉좌산(589m) 북쪽 기슭에 자리하며 1리에 고지뱅이, 화창리(禾蒼里)가, 2리에 와지(瓦旨), 암정(岩井)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1914년에 고지리라 통칭하였다. 서편 마봉산이 말이 달리는 형상으로, 머리부분이 와지 뒤편으로 용마등이라 하고, 허리 부분이 고지뱅이 뒤편이며, 꼬리 해당 부분을 말미(馬尾)들이라고 한다.

● 고지뱅이·고두뱅이·고척(高尺)

300여 년 전 박춘우(朴春禹)라는 선비가 정착하여 봉좌산 정상부의 바위를 봉좌암이라 이름하였으며, 마을에서 바위를 쳐다보면 앞산인 마봉산(馬峯山) 허리 위로 한 자 정도 솟아 보인다 하여 고척·고지뱅이·고두(高頭)뱅이라 불렀다 전한다. 2천년 전 고주보(高周寶)라는 장사가 아홉 개의 바위를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옮겨 가다가 성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버려둔 바위가 흩어져 있는 들이란 전설에 따라 고주뱅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 암정(岩井)

옛날 구암(九岩)과 칠정(七井)이 있던 마을이란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구총암(九塚岩)이라고도 부르는 구암은 고인돌로 1988년 경지정리 때 9개 중 8개가 묻혀버렸다 한다.

● 새각단·화창리(禾倉里)

뒤늦게 신설된 마을로서 벼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란 뜻이다. 1961년 최병현(崔炳玄)이 앞장서서 개척한 마을이다.

● 와지(瓦旨)

암정리 남서쪽에 위치하며 대문단이 논이란 곳에 옛날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연유하여, 또는 지형이 기와장 같아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정월보름에 자연부락 단위로 동제(洞祭)를 지낸다.

5) 문성리(文星里)

신라 후기에 쌓았다는 산성이 있는 백마산(白馬山, 383m, 일명 무학산, 장방산, 성산) 북쪽 산기슭에 형성된 마을로서 신라 때 기성현기(杞城縣基)가 있었다. 원씨(元氏)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한때 원문동(元門洞)이라 불렀다 한다. 그 후 남양홍씨(南陽洪氏) 집성촌이 되었다.

● 문성(文星)

번창하던 마을이 기계천의 범람으로 농토가 유실되고 쇠퇴하여져 갈 때 하늘에 문창성(文窓星)이 나타나 마을이 다시 번창하게 되어 불인 마을 이름이라 한다.

1970년대초 새마을사업 성공사례지로 박정희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 비교행정회의를 개최했던 곳으로 박정희대통령순시기념비(1993년 개축)와 새마을운동발상기념비, 문성양수장설치기념비가 동네 어귀에 있다.

이 마을이 새마을운동발상지임을 알리기 위해 2009년 포항시에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을 건립하였다.

6) 학야리(鶴野里)

어래산(魚來山, 444m)과 성산(城山)이 이루는 계곡에 형성된 마을로서 담안, 걸띠배기, 학골, 안동네, 중법(中法), 탑골(塔谷)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1914년 학골의 ‘학(鶴)’자와, 들이 있어야 학이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뜻으로 ‘야(野)’자를 취합하여 학야리라 하였다.

● 담안마을

어래산쪽 산기슭에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는데, 담을 높이 쌓고 산다고 불린 이름으로, 터가 너무 세어서 기질이 거칠어진다고 하여 대부분 학골로 이주하였다 한다.

● 학골·횃골·햇골·학곡(鶴谷)

학의 서식처가 있던 곳이란 설과, 내단(奈丹)에서 관망하면 지형이 학을 닮았다는 설과, 큰 회화나무 당산목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회나무골, 횃골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 안쪽을 안동네라 한다.

● 걸띠배기

학골 어귀 개울가에 형성된 마을인데 학골과 연결되어 있으며 회화나무 당산목이 있다. 시월보름에 여기 제단에서 동제를 지낸다.

● 중법(中法)

학야동 첫 들머리에 위치한 인동장씨(仁同張氏)가 일군 마을이다. 들머리 지릿들에는 고인돌 4기가 있다.

● 탑골(塔谷)

중법 서편 언덕 위의 마을인데, 옛날 절이 있었고 오랫동안 탑의 흔적이 남아 있던 마을이라 한다.

7) 성계리(星溪里)

동은 경주시 강동면에, 남은 아래산이 휘감는 곳에 위치하며, 북에는 기계천이 흐른다. 1914년 칠성(七星)과 화계(花溪)의 각 한 자를 취합하여 성계리라 하였다. 자연부락으로는 1리에 아인골, 2리에 화계, 화당(花堂), 방구뱅이, 싯집매가 있다.

● 아인(安仁)골·칠성동(七星洞)

300여 년 전 신유효(辛裕孝)란 선비가 노당재(일명 칠성현)로 넘어가는 길목 골짜기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 현재의 위치로 이주해 오게 되니 고인돌인 칠성암이 마을 속에 들게 되어 칠성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원래 형성된 마을은 안인(安仁)골이라 했는데, 발음이 변천되어 아인골이라 하며 편안히 어질게 살아가는 마을이란 뜻이라 전한다.

● 화당이·화당(花堂)

처음 10여 호 살 때 살구꽃이 피면 꽃 속에 집들이 묻힌 듯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한다. 지금은 싯집매 마을과 연결된 큰 마을로 변천하였다.

● 화계(花溪)

월성김씨가 300여 년 전 개척한 마을로, 산에서 흐르는 개울가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많던 마을이라 화계라 했는데, 변음되어 회계라고도 부른다. 30여 호 살고 있다.

● 방구뱅이·방구백이

큰 바위(고인돌 3기)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이 바위는 1956년 성계교회가 설립되면서 파손되고 그 파편 바위쪽 두 개가 남아 있다. 2리에서는 3~4년 전부터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싯집매

세(三) 집이 모여 산다고 붙인 마을명으로 현재는 10호가 산다. 마을 앞 들의 경지 정리가 1985년에 이루어졌다.

8) 내단리(奈丹里)

비학산의 일지맥이 남주하여 해발 307m의 용산(龍山, 일명 사산, 태봉, 봉화봉)을 웅기하였는데, 이 산 서쪽 산기슭에 내만(넙망), 남쪽에 안사산(內蛇山), 동남쪽에 바깥사산과 윗달성, 점달, 동쪽에 종단(宗丹)이 있어 각각 1, 2, 3리로 구분하고 있다. 1914년 이들을 합하여 내만(奈萬)과 종단(宗丹)의 이름을 취합한 내단(奈丹)이라 명하였다.

● 안사산(蛇山)

1리에 안사산, 바깥사산, 점말과 같은 마을이 있다. 윗달성은 도로개설로 폐촌이 되었다. 뒷산인 용산은 신라 때 태자의 태(胎)를 묻었다 하여 태봉(胎峯)이라 부르기도 하고, 봉화를 놓던 산이라 하여 봉화봉이라고도 한다.

● 바깥사산

용산의 남동쪽 산기슭에 위치하는 마을로 월성이씨가 세거하면서 풍수설에 의거하여 기계천의 물이 흘러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달성(達城)마을에다 숲을 조성하였다 하며, 지금은 개간되어 과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1911년 건립된 내단교회가 있고, 비왕산업이란 비료공장이 있다.

● 달성(達城)

옛날 달성서씨가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생긴 지명이라 전한다. 경주시의 달성과 포항시의 달성이 내단천을 경계로 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점마을

아랫사산 북쪽에 위치하는 웅기 굽던 마을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중단되었다. 신라토기를 재현하는 신라토기 제조업체가 있다.

● 멀망·내만(奈萬)·원계(遠溪)

300여 년 전 안동권씨(安東權氏)와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한다. 현기(縣基)를 멀리 바라보는 곳에 있다는 뜻으로 멀망이라 하고, 기계천에서 멀다는 뜻으로 원계(遠溪)라 했다 하나, 내만의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종단(宗丹)

내단 3리로서 용산 북동쪽에 위치하여 멀망과 대칭하고 있는 마을로 300여년 전 최국일(崔國一), 박충국(朴忠國) 두 선비가 개척했다. 불무혈(穴)이라는 용산 머리 북쪽의 굽은 능선이 소의 짐바리 모습과 유사하므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멀망의 돌무덤에 상응하는 돌더미(돈대)를 마을어귀에 쌓기도 하였다. 당산목은 고사하였으며, 6.25이후부터 동제는 폐지되었다.

9) 화대리(禾垞里)

용산과 두봉산이 이루는 골짜기에 형성된 자연부락 숲뒤마을과 방축(防築)마을을 합하여 1914년 화대리(禾垞里)라 하였다. 원래 용산 산록과 두봉산 산록의 팔리곡(八吏谷) 어귀에 산재하고 있던 마을이 40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이주해 옴으로써 형성된 마을이라 전한다.

● 방축(防築)

400여 년 전 기계의 현기(縣基)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숲을 조성하니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모여 살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조 중엽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를 지낸 김순(金洵)이 마을 북쪽 하천에 제방을 쌓아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벼농사를 진흥시키니 방축이란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다.

● 숲뒤

동숲 뒤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건너 산에 다목골이란 애장터가 있는 골이 있는데 마을에서 이곳이 보이면 마을이 망한다 하여 숲으로 가려야 한다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이 숲의 보존을 위해 등기할 때 주민수가 많았던 이씨, 김씨, 방씨 성을 따 이김방(李金方)으로 등기하였다 한다.

10) 화봉리(禾峰里)

두봉산과 비학산 사이에 기동지(杞東池, 일명 화봉지)를 만들어 화대리(禾垓里)와 이 마을을 수리안전담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이 뜻의 북쪽에 거릿마을, 남쪽에 야리(야리), 남서쪽 언덕배기에 옛 마을인 상동(上洞)과 화망(禾望)이 있다. 1914년 마을 이름을 화봉(禾峰)이라 칭하였다.

● 거릿마을·항계(巷溪)

계전(桂田)과 미현(美峴)으로 가는 세 갈래 길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서편 평해황씨(平海黃氏) 묘역에 6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어 칠성(七星)바위라 부른다.

● 망봉(望峰)·화망(禾望)

윗마을(上洞)은 220여 년 전 월성박씨(月城朴氏)와 평해황씨(平海黃氏)가 개척했으며, 아랫마을은 290여 년 전 황보(皇甫)씨가 개척했다 한다.

멀리 비학산 머리를 바라다보는 마을이라 하여 망봉(望峰)이라 하고, 개간 및 수리시설이 발전함에 따라 논이 많아지자 벼가 넘실거리는 들을 바라보는 마을이라 하여 화봉(禾峰)이라 이름했다 한다.

● 야리(野里)

90여 년 전 망봉에 살던 김씨와 이씨가 이주해 옴으로써 형성된 마을인데 지금은 화봉리의 중심마을이 되었다.

1907년 상동(上洞)에 건립되었던 화봉교회가 1970년 이 마을로 이건(移建)되었고, 기동초등학교는 폐교되고 현재는 대한항공직업전문학교가 들어서 있다.

11) 계전리(桂田里)

1914년 계동(桂洞), 정자동(亭子洞), 신전동(新田洞)을 통합하면서 계동의 ‘계’와 신전동의 ‘전’을 따서 계전리(桂田里)라 하였다.

● 저동(猪洞) · 계동(桂洞)

마을의 지형이 돼지형국이라 하여 저동(猪洞)이라 불려오던 것을 병자호란 때 피난을 와서 살게 된 손득상(孫得尙)이 계수나무를 심고 자(字)를 계종(桂種)이라 한 데 연유하여 그 후손이 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993년 노거수회에서 심은 계수나무가 일부 자라고 있다.

● 새터 · 신전(新田) · 신기(新基)

계동 서편 산능선 너머 기북의 대곡리 쪽에 이(李)터골이란 곳이 있는데, 월성이씨들이 피난하여 살다가 새 마을을 일궈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새터라 했다 한다.

● 정자동(亭子洞)

큰 오동나무 정자목이 있었다 하여 정자동(亭子洞)이라 했는데, 봉계정(鳳溪亭)과 함께 80여 년 전 소실되었으며 그 후 동제사도 폐지되었다. 최국현(崔國賢) 선생이 강론하던 강당 터에 후손들이 건립한 학계정(鶴溪亭)이 있다.

12) 미현리(美峴里)

1914년 미노리(美老里)와 현남리(峴南里)를 취합하여 미현리(美峴里)라 하였으며, 당골, 안재내미, 밖재내미, 옥골, 미노리, 부운암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 안재내미 · 내현(內峴) · 미곡(美谷)

한갓골재를 넘어가는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이다. 월성김씨 재실이 있다.

● 밖재내미 · 밤마을 · 외현(外峴) · 현남(峴南)

월성이씨가 임란시 피난차 입주 형성된 마을이다. 뒷산 중턱의 벗나무 당산목에 음력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낸다.

● 중재내미

밖재와 안재 중간에 있던 마을인데 임란시 안동권씨(安東權氏)와 여강이씨(驪江李氏)가 피난와서 일군 마을로서 10여 호 살았다.

● 당골(堂谷)

가장 안골짜기에 위치하며 마을 어귀에 4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이 있었으므로 불리게 된 지명이다.

● **부남·부운암(富雲庵)**

해발 384m의 부남산(‘부운암산’의 변음) 기슭에 기계유씨(杞溪兪氏) 시조인 신라 아찬 유삼재(新羅阿滄兪三宰)의 묘가 있고, 그 동편 골짜기 옛 부운암 터(富雲庵)에 재실인 부운재(富雲齋)가 있다.

● **큰옥골·옥동(玉洞)**

재내미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다. 옥과 같은 맑은 골짜기에 월성이씨 재실 옥동재사(玉洞齋舍)가 있는데 이말동(李末全) 공 묘재궁(墓齋宮)이다.

● **작은옥골**

큰옥골 남쪽 골짜기에 두어 집 살던 마을인데 월성이씨 재실 소옥재(小玉齋)가 있다.

● **미노리**

20여 호가 골짜기 도로를 따라 흩어져 살고 있는데 수질이 좋아서 장수하는 마을로 고급육 생육단지 지정되어 있다.

13) **인비리(仁庇里)**

영천시(永川市) 자양면(紫陽面)과 경계를 이루는 운주산(雲住山, 806m)의 동쪽 기슭에 자리하며 죽장과 기북으로 통하는 도로의 길목에 위치하여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뒤짜골(인비), 밀밭번데기, 포구나무지이, 대기터, 토월리와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인비(仁庇)라 하였다. 죽장과 기북으로 가는 갈림길 대기터 마을 부근 산록에 15~16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특히 석검(石劍) 문양의 고인돌이 있어 관심을 끌었다.

● **뒤짜골·인비(仁庇)**

먼저 추(秋)씨가 마을을 개척하였고 하(河)씨가 뒤이어 들어와 거주하였으며, 경주김씨가 세번째 입주하였다 한다. 추씨와 하씨가 타지로 떠난 뒤 마을이 커지고 장터가 생기며 역촌이 되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어진 사람들은 숨어 버리게 되어 인비(仁庇)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서편 운주산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별 모양이어서 무관이 많이 나온다는 설이 있다.

● **대기터**

조선대에는 5일장이 컸다고 한다. 목재를 넘나들려면 호랑이나 도적떼가 두려워 여러 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던 곳, 또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큰 틀을 놓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기북면과 경계를 접한다.

● 밀밭번데기

산기슭 밀밭이 많던 곳에 마을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포구나무지이

큰 포구나무가 있고 그 아래 주막이 있어 쉬어가던 마을이다. 인비가 역촌일 때부터 일제시대에 이르도록 장이 서던 지역이다.

● 토월(吐月)

마을 남쪽 함월산(含月山, 함박산)에 달이 뜬 모습이 마치 산이 달을 토하는 듯하다 하여 토월리(吐月里)라 했다. 뒷산에 이여송이 혈을 질렀다는 자리가 있다.

14) 구지리(九旨里)

1914년 골마을, 새각단, 건너각단, 진월을 합하여 구지(九旨)라 하였다.

● 골마을·골마루·구지(九旨)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며, ‘九旨’는 구지(龜旨)·구지(龜池)의 오기로, 옛날 경주김씨가 정착하면서 집터를 닦을 때 거북 같은 바위가 나왔다 하여 불리게 된 지명이다.

● 새각단·신리(新里)

조선 말엽에 경주김씨가 개척한 새 마을이다. 그 때 심은 느티나무 정자목이 다섯 그루 남아 있다.

● 건너각단

하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각단 서편에 위치한다.

● 지너리·진월(眞月)·진월(津月)

마을의 지형이 반달 같은 데 연유한 지명이다.

15) 가안리(駕安里)

죽장면과 경계를 이루는 한티재(大峴) 아래 골짜기와 광대산(廣大山) 동쪽, 북쪽 기슭에 자리한 마을이다. 먹골, 한티, 안심(安心), 가천(駕川)과 같은 자연부락들을 1914년 통폐합하여 가안(駕安)이라 하였다.

● 먹골·벗골·모래골·내동(奈洞)

한티재를 오르는 국도변 골짜기에 위치하며, 뒷산에 절이 있을때 벗나무가 많아 마을 이름도 이에 연유하는데, 원래는 길 건너 산록에 있는 300여년생 느티나무 당산목 부근에서 시작된 마을이다. 동제는 단오에 지낸다.

● 한티

한티재(大峴)를 넘는 옛 길이 이 마을을 지났으며 재 아래 마을이라 하여 불려진 지명이다. 마을 어귀엔 고인돌들이 있다.

● 안심(安心)

조선 중엽 한 선비가 은거하면서 안심하고 살 곳이란 뜻으로 지은 지명이라 한다. 느티나무 당산목에 정월 보름날 동제를 지낸다.

● 가천(駕川)

뒷산인 광대산의 형상이 황소 잔등과 같이 생겨서 산정상을 황소말랭이, 그 하단부 고개마루를 우목(牛項)넘이라고 하며 양쪽에서 흘러내리는 마을 앞 냇물의 모습은 멩애(駕) 같아 가천이라 했다 전한다.

16) 남계리(南溪里)

운주산(雲住山, 807m)의 북서 산록과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서편 불래재를 넘어 영천의 자양호(紫陽湖)에서 포항제철로 공업용수를 보내는 송수관이 지난다. 1914년 불랫마을, 절골, 점마을 등을 합하여 남계리(南溪里)라 하였다.

● 남배이

남(南)씨, 배(裴)씨, 이(李)씨가 살고 있을 때 ‘남배이’라고도 불렀으며, 마을 남쪽이 산으로 막혔다 하여 남방이(南防), 내가 남쪽에서 흘러온다 하여 내남, 남내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1580년경 한치무(韓治武)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전한다.

● 불랫골, 하래(下來), 불래(佛來)

불랫재를 오르는 길목에 있었던 작은 마을인데 절터골에 나대(羅代)에 절이 있어 부처님이 오신다는 뜻(佛來)과, 재를 넘어가면 도적이나 범과 같은 야수의 피해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不來)과, 영천 쪽에서 불을 내면 강한 서풍을 타고 이 마을로 번져 온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의 화령현(火嶺峴) 아래 있는 마을이다. 20여 년 전 이 재를 뚫어 포항종합제철로 보내는 송수관을 설치하니 마을 샘물이 말라 남배이 마을을 주로 하여 모두 떠나 버리고 인가가 없다.

● 절골

남서쪽 운주산(雲住山)의 한 골짜기다. 신라시대의 절 안국사(安國寺)가 있을 때엔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계곡 어귀에 하안국사(下安國寺)가 있다. 산 중허리 안국사지결에 상안국사란 암자가 있다.

● 점마을

남배이와 불랫 중간 마을로서 1958년 남계지 축조시 없어졌다. 저수지 상류에 작은 암자가 있다.

6. 죽장면(竹長面)

1) 상옥리(上玉里)

흔히들 이곳을 ‘오강지두 팔령지하(五江之頭 八嶺之下)’라 일컫는데, 오십천, 형산강, 낙동강, 금호강, 곡강(曲江)으로 흘러드는 물이 이 주위의 분수령(分水嶺)에서 시발되며, 오전령(烏田嶺), 통점령(通店嶺), 천장령(千長嶺), 승암령(僧岩嶺), 천령(泉嶺), 괘령(掛嶺), 생란령(生卵嶺), 갈전령(葛田嶺)이 있어 이 준령을 넘어야 타처로 통하는 오지인지라 예부터 피란지처(避亂之處)로 ‘첫째는 고래요, 둘째는 두마(斗麻)’라 불리던 곳이다. 옥같이 맑은 냇물이 흘러 오십천(五十川)의 상류 한 지류가 되니 세칭 옥계(玉溪)라 했으며, 고래 또는 고내라고도 부르던 상옥은 높은 지역에 흐르는 냇물이란 뜻인 고천(高川)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지형이 마치 거대한 고래로 각(刻)을 떠낸 듯 한 행주형국(行舟形局)인지라 이에 연유하여 고래(鯨)라 부른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편 산의 모습이 암수 두 마리의 고래를 닮았다는 데 연유한다고도 전한다.

1910년 청하군의 죽북면(竹北面) 지역이었는데 1914년 영일군 죽남면(竹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34년 죽장면에 귀속되어 오늘에 이른다.

윗고래인 1리에는 거릿마을(거렁미), 솔안마을(松內), 못둑모치, 무싯골(수철골)이 있고, 아랫고래인 2리에는 상윗골(사윗골, 셋모치), 배빛재마을, 당모치(堂坪), 먹방골(墨房里), 넘은절골(越寺洞), 장터, 쑥밭과 같은 마을이 있다.

2007년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시티가 조성되어 활기를 띠고 있다. 먹방골은 그 당시부터 먹을 만드는 고을로 소문이 났고, 무싯골은 병기와 농기를 만드는 마을로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다.

● 쑥밭

화전이 밭으로 변한 것을 쑥밭이라 부른다. 약초나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거나 토종 닭, 뒷돼지 등을 사육을 하면서 10여 호가 살던 산촌이었는데, 1996년대에 이르러 모두 이주시키고 165,000평에 경상북도수목원이 조성되었다. 덕성산 고갯마루에는 맑은 샘이 있어 샘재라 불린다.

2) 하옥리(下玉里)

옥계를 따라 북쪽 협곡으로 내려가면 향로봉(香爐峯)과 천장현(千長峴) 사이에 작은 산촌이 띄엄띄엄 나타난다. 둔세동(遁世洞), 윗마두(上馬頭), 아랫마두, 덕골의 뒷터와 황정, 윗배지미(上陽岑), 아랫배지미 등을 합하여 1914년 하옥(下玉)이라 하여 죽남면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1934년에 죽장면에 편입되었다. 김해김씨, 안동권씨, 나주임씨, 월성이씨가 많이 살며 유기농 특구로 선정되어 고랭지 채소재배 등로 근년에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둔세동(遁世洞)

세상을 등지고 사는 곳이란 뜻으로 신라 때는 4백여 가구가 살던 곳이다. 30여 년 전까지 다리목 부처바위 건너에 작은 암자가 있어서 풍치를 더하였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여 철거당했다.

● 마두전(馬頭田)

둔세동에 이어지는 산촌 마을로 건너편 산의 모습이 말머리 같은 모습인 데서 연유한다. 윗마두와 아랫마두가 하천변 산록에 위치해 있으며 두 마을 각각 3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이 있어 정월보름(윗마두)과 칠석(아랫마두)에 제사를 지낸다.

● 배지미·양잠(陽岑)

상옥은 배의 형국이고 하옥은 노(지미) 혹은 키에 해당된다 하여 불리어진 지명이며, 양지바른 곳 고산지대의 터전이란 뜻으로 양잠(陽岑)이라 부르기도 한다.

● 덕골

아랫마두밭에서 붉은지미산을 돌아 내연산 쪽으로 접어드는 큰 골짜기인데, 뒷골에 뒤터란 화전민촌이 있었고 앞 골엔 황정이란 마을이 있었다. 황정에서는 아흔아홉 간 건물이 있었고 석문교(石門橋)를 막고서 엽전을 찍었다 전한다. 가까이 온천수가 흐르고 계곡에는 주황색 암반이 드러나 있다.

3) 가사리(佳士里)

입암(立岩)에서 상옥으로 넘어가는 가사령(佳士嶺) 골짜기에 큰마을, 중마을, 윗각단, 갈밭, 독골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 큰마을

30여 년 전까지 110호 가량 살았는데 지금은 60여 호 살고 있다. 죽장초등학교 가사분교(1965. 3. 1~1992. 3. 1.)는 폐교되었다. 출입구 좌측 숲에 교사 박대하 기념비

(1969)가 서 있다. 정월보름에 배씨 터주에 우씨, 월성김씨 골막이신위를 모시고 느티나무 당산목에서 동제를 지낸다.

마을 중간 진입로에 월성손씨 뇌고 여제(雷阜 汝濟)선생이 글을 읽던 고반정적지비(考槃亭蹟地碑)가 서 있다. 일제시대 백탄을 공급하던 숲의 명산지였으며, ‘어사룡’이라는 나뭇꾼 노래를 비롯한 풀매기, 김매기의 농요와 초동(樵童)들의 놀이였던 지계상여놀이가 잘 보존되고 있다.

● **웃각단**

12호 정도가 살고 있으며, 다리목에는 5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수고 20m, 가슴둘레 5.6m)이 있는데 정월보름에 중(中)마을과 합동하여 당제를 지낸다.

이 부근에는 250년 전 능성구씨(綾城具氏)가 입향하여 월성손씨, 김해김씨와 세거하면서 당대에 유명한 ‘가시내 솔’을 만들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가시내란 지명은 이곳에서 생산되던 솔의 질이 워낙 뛰어나서 장안의 기방(妓房)에 서까지 소문이 자자한지라 이에 빈정댄 뜻으로 가시내골이라 부른 것에 연유한다고 한다.

● **갈밭·갈전(葛田)**

웃갈밭, 아랫갈밭으로 나뉘어 있는데 아랫갈밭에는 1990년까지 5호 정도가 살았으며, 웃갈밭은 덕수밭이라고도 하는데 1980년까지 인가가 있었다.

이곳에도 큰가매골, 작은가매골과 같은 지명이 남아 있어 농기구와 무기의 주생산지였음을 짐작케 한다.

● **독골·독곡(陶谷)**

큰마을에서 남동으로 벼슬재를 넘는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 옛날 도요지(陶窯址)가 있던 곳이다. 마을의 모습 또한 항아리 형국이라 하여 예부터 샘을 파지 못하는 마을이라 한다.

4) 매현리(梅峴里)

입암(立岩)에서 가사천(佳士川)을 거슬러 북동쪽 골짜기로 접어들면 침곡천(針谷川)이 흘러드는 곳에 옥학담(浴鶴潭, 일명 鶴沼)이 나타나고, 여기서 북으로 500여m 들어가면 병암산(屏岩山) 머리에 노거수림이 있고 그 건너편 양지바른 언덕에 매현1리인 아랫퇴재마을이 있다.

여기서 가사천을 따라 중마을, 돌다리, 딱밭골(楮田)과 같은 2리 구역의 산촌이 자리하고 있으며, 100여호가 담배, 고추, 채종용 소채재배 등에 종사하고 있다.

● **아랫외재(山峴·梅峴·美峴·下山里)**

3기의 고인들이 있으며, 월성손씨 세거지로서 노잡 손여두(魯岑孫汝斗), 일휴제 손여규(逸休齊 孫汝奎) 두 형제분을 추모하여 세운 체악당(棲蓴堂)이 있고 서당이던 소로정(小魯亭)이 있다.

● **중마을**

매현동(梅峴洞)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마을(中里, 上山里, 上峴, 윗외재)에는 한양조씨(漢陽趙氏) 세거지로서, 서당으로 쓰던 월성손씨 재실 연옥암(練玉庵)이 있고, 동제를 지내던 옛 숲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마을 동편 들녘에는 고인돌 1기가 있다.

● **딱밭골(楮田里)**

돌다리가 있던 돌다리마을을 지나 북동쪽 계곡을 더 들어가면 닳나무가 많던 딱밭골이 있으며, 이 마을 어귀에 무당소(沼)가 있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약을 쳐서 잡으려고 하면 비가 내려 잡을 수 없게 했다고 한다. 옛날에 이곳을 한 점쟁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는지라 나뭇가지에 돈을 매달고 치성을 들며서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여 무당소라 한다.

5) 침곡리(針谷里)

입암리(立岩里) 동쪽 침곡산(針谷山, 726m)을 향해 뚫린 좁고 긴 바늘 같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점마을, 안바느실, 중마을, 밖바느실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월성손씨, 진주강씨, 월성김씨가 세거해 왔다.

● **점마을(店村)**

300여 년 전 능성구씨(綾城具氏)들이 들어와 솔을 만들면서 구점마을(舊店村)이라 불렀으며, 구씨들이 가사(佳士)로 이주해 가버린 후 그 안쪽 골에 진주강씨와 월성손씨가 터를 잡아 살게 되었다 한다.

● **안바느실·내침곡(內針谷)**

중간마을과 구점촌(舊店村) 사이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다. 7월 칠석날 느티나무 당산목에서 동제를 지낸다. 월성손씨와 월성김씨가 터주라 전한다.

● **중바느실·중마을**

밖바느실 마을과 인접하며 동제사는 밖바느실과 합동으로 지냈다.

● **밖바느실·아래바느실·외침곡(外針谷)**

진주강씨와 월성손씨가 터주라 전한다. 한때 집성촌을 이루었던 순천박씨는 1호 남아 있다.

6) 입암리(立岩里)

동은 산지령(産芝嶺), 남은 봉화령(烽火嶺), 서로는 격진령(隔塵嶺)과 정운령(停雲嶺), 북에는 소노잡(小魯岑)과 같은 산령들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면소재지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솔안·큰마을·골안을 1리로, 장터·구장터·명미마을을 2리로 나누어 입암이라 통칭하였다.

● 솔안마을(松內洞)

마을 앞에 200여년 느티나무 수 그루가 가사천변에 남아 있고 물가에 20m 높이의 선바위가 하나 있어 입암(立岩)이라 부른다.

송림 울창한 언덕에 경북 기념물 70호인 여헌 장현광 선생을 주향하고 있는 입암서원(立岩書院)과 300여 년생 은행나무가 있으며 400여 년생 향나무는 최근 고사하였다. 입암 바로 옆에 일제당이 있고, 서원 우측에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의 처소였던 만활당(萬活堂)이 있다.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선생이 지은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이 전해지고 있으며, 2000년 서원 앞 냇가에 시비를 세웠다. 임란 때 권극립(權克立) 선생이 피난차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증손자대에서 평지(平地)마을(큰마을)을 일구었고, 같은 시기에 이천서씨(利川徐氏)가 골안에 정착, 골안마을을 일구었다 전한다. 솔안마을에는 지통(紙通, 종이공장)이 있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는 정병환(鄭柄煥)씨가 황모(黃毛)와 장액(獐腋)의 고운 털로 만든 붓이 유명하였다. 마을 뒤에 있던 원촌(遠村)이란 작은마을은 없어졌다. 서원 뒷마을을 별도로 서원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 큰마을

장터, 구장터마을과 합동으로 단오날 외당(外堂, 큰마을 어귀 400여 년생 느티나무)과 내당(內堂, 400여 년생 느티나무)에서 동제를 지낸다.

1907년 산남의진의 입암전투 때 일본수비대의 만행으로 많은 가옥과 고서들이 소실되었다 한다. 동와권공유덕추모처(東窩權公遺德追慕處)인 오로정(吾老亭)과 참판동봉권공숭봉지처(參判東峯權公崇奉之處)인 영모당(永慕堂)이 있으며 관공서로는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가 있다.

● 장터

큰마을 들머리에 구장터가 있고 이곳에는 죽장초등학교(1931년 설립)와 입암교회, 면민 복지회관, 우체국이 있다. 면소재지가 확장됨에 따라 시장이 협소하므로 1940년 경 합류대(合流台)라는 거대한 바위를 제거하고 하천을 정리하여 새 장터를 마련하여 생긴 마을인데 큰마을에 연결한다.

● 명미·명외·명리(鳴里)

현내로 가는 길 서편 산록에 형성된 10여 호 사는 산촌이다. 이름난 묘터가 있다는 뜻으로, 혹은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우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뜻으로 지어진 지명이라 전한다.

7) 일광리(日光里)

입암리 남서편에 위치하며 청하군 죽장면에 속한 것을 1914년 개일(開日), 광천(廣川), 답동(答洞) 일부를 병합하여 일광리(日廣里)라 한 것이 일광리(日光里)로 기록되어 오늘에 이른다. 40여 호가 개일, 도덕골, 윗광치, 광치에 흩어져 살고 있다.

● 광치이(廣川)

하천이 넓게 펼쳐진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광천이라 불렀다 한다. 월성김씨가 마을을 개척했다고는 하나 확실치 않다. 윗광천리에는 밀양박씨가 터전을 잡았다 한다. 안골에 문암(門岩)동이 있었는데 근년에 모두 철거하였다. 아랫광천 마을에는 선산김씨와 월성김씨가 터전을 닦았다 하며 정월보름날 상수리나무 당산목에서 당제를 지낸다.

● 도덕골

신라대에 도덕사(道德寺)란 절이 있었다 하여 도덕골이라 부르는데 이 안골 고지대에 20여 호의 화전민들이 살던 셋별마을(曉星村)은 1966년 철거되었다.

● 개일(開日)

높은 지대에 동향으로 자리한 마을이라 해가 뜨면 이 마을에 제일 먼저 비쳤다 하여 개일이라 불렀다 하며, 배씨와 이씨가 터주라 전한다. 신라 성덕왕 18년 창건된 서운사지(瑞雲寺址)터에 서운사가 있고 문정대사(文晶大師)와 설송당대사(雪松堂大師)의 부도가 있다.

8) 지동리(芝洞里)

자호천(紫湖川)을 따라 영천군 자양면에서 죽장면으로 찾아들면 그 들머리에 아랫지들·웃지들, 강건너엔 음지마을, 그리고 한티재를 넘어오는 국도와 마주치는 곳에 논골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다. 청하군 죽남면 지역이던 것을 1914년 논골과 영천군의 신당동(神堂洞) 일부를 병합하여 지동(芝洞)이라 하여 죽남면에 속하였다가 1934년에 죽장면에 편입되었다.

● **지들·지동(芝洞)·지평(芝坪)**

마을 주변 자호천변에 잔디가 무성하여, 혹은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약초인 지치가 무성하였다 하여 지들이라 불렀다 전한다.

● **논골(畚谷)**

자양면(紫陽面) 보현동(普賢洞)으로 가는 뱃고개(10여 호가 살았던 마을)로 뚫린 군사도로와 기계면으로 넘어 가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며, 옛날에 논이 많지 않던 시절에 비교적 논이 많은 편이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9) 정자리(亭子里)

한티재(大峴)와 핑구재(坪丘峴)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서 북서쪽에는 봉화봉이 솟아 있다. 1914년 송림, 양지, 음지, 정자(큰마을), 점말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정자나무가 있는 큰마을의 이름을 따서 정자라 하고 죽남면에 편입하였다.

죽장지역에서 처음 과수원이 형성되었던 곳이며, 과수집단지로 탈바꿈하여 있다. 10여 년 전까지 밀양박씨(密陽朴氏), 풍산류씨(豊山柳氏)가 세거하고 있었다. 큰마을의 정자초등학교(1949. 4. 15설립)는 1995. 3. 1에 폐교되었다. 그 앞에 1945년 설립된 정자교회가 있다.

10) 감곡리(甘谷里)

한티재를 넘어 정자리에 들면서 북쪽으로 턱어진 골짜기에 못안, 중리(中里), 큰마을, 서리골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감나무가 잘되는 마을이라 하여 감실, 감골이라고도 불려왔는데, 1914년 감곡리라 통칭하였다.

● **서리골**

감곡지(甘谷池) 안쪽에 남효온(南孝溫) 선생의 후손들이 숨어 들어와 마을을 설립하였다 하여 설립골이라 불렀는데 발음이 변천되었다 한다.

● **큰마을**

중심되는 마을이라 하여 큰마을이라 부른다. 난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과 화전민이 일군 마을로서 월성이씨나 경주김씨가 5, 6대째 세거하고 있다. 이 마을 안 골짜기에 감곡지(甘谷池)란 작은 못이 있다.

● **중마을(中里)**

못안마을과 큰마을 중간에 위치하는 20여 호 살고 있는 마을이다.

● 못안(池內)

감곡 어귀에 옛날엔 못이 있었고, 그 안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남효온 선생의 후손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그 뒷마당에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근년에 허물어졌다.

11) 상사리(上舍里)

한때 청하군 죽북면 지역으로서 중심되는 마을인 오사리(五舍里) 상류지역을 윗오사라 구분하여 불러오다가 1914년 통폐합 때 오사리, 공수골, 평지동, 점마을, 절골, 송이골을 합하여 상사리라 했다. 예부터 대추나무가 많은 마을이다.

● 오사리(五舍里) · 시문리(柴門里)

역용등(逆龍嶺)이 멎는 곳에 위치하며 신라대에 유배되어 온 다섯 명의 사인(舍人)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사립문을 달고 살았다 하여 불리어진 지명이라 한다.

● 점(店)마을

평지동 동쪽 산골짜기에 위치하며 옛날 사기그릇을 구워 팔던 곳으로 점(店)이 있던 마을이다. 당산목인 상수리나무에서 정월 보름에 동제사를 지낸다.

● 평지동

산골짜기에서 비교적 넓은 평지가 전개된 곳이다. 10년 전까지 34호 정도 살았으며 양지 마을 쪽에 25호, 당마을 쪽에 9호가 산다.

● 절골

신라대에 개운사(開雲寺)란 절이 있었는데 빈대로 망했다 한다. 당산목은 상수리나무(가슴둘레 약3m)다.

● 송이골

구암산(九岩山) 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하는 산촌으로서 예부터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느티나무 당산목(가슴둘레 4.2m)에서 정월보름에 당제를 지냈는데 근년에 폐지했다. 이 마을 남쪽에 석계리(石溪里)로 넘어가는, 백 번이나 굽이진 백고개가 있다.

● 공수(空守)골

상사리의 남단, 옷재 높은 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한때 10여 호가 살았다.

12) 하사리(下舍里)

죽북면 지역일 때 오사리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오사(下五舍, 아랫오사)라 불렀는데

1914년 청송군의 병보동(竝甫洞)일부를 병합하여 하사리(下舍里)라 하였다. 구음(九音)마을, 간지동, 월경, 아랫월경, 갈비골, 흙골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 **굶마을·구음마을**

마을이 위치한 지형이 움푹 구멍이 패인 듯한 곳인지라 굶은마을, 혹은 굶마을이라 부른다고도 하며, 마을 앞에 구멍 뚫린 큰 바위가 있어서 아홉 가지의 소리가 난다하여 구음(九音)마을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 **간지동(千支洞)**

구음마을과 월경 중간에 위치하며 주위에 접시골, 반두들, 절골과 같은 지명들이 있어 마치 밥상을 차린 듯한 형국인지라 이에 마을 이름도 옛날 숫가락의 이명인 ‘간지술’이란 것에서 택하여 간지동이라 불렀다 전한다.

● **월경(月景·越境)**

청송과의 경계지역이었기에 월경(越境)이라 부른다고 전하며, 마을의 모습이 달 같다 하여 월경(月景)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윗월경과 아랫월경이 있으며, 상월경에는 김해김씨 세거지이며, 하사교회(1921년 건립)가 있다.

● **갈비골·병보(竝甫)·대기동(大岐洞)**

청송군과의 경계선이 자초산(紫草山, 해발763m) 능선을 따라 이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실개천(너비4m)을 지난다. 이에 50여호 살던 마을이 두 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갈비짜 같은 형태를 갖는지라 마을 이름을 병보동, 갈비골, 대기동이라 하였다 한다.

13) 석계리(石溪里)

구월산(九月山, 808m) 남서 깊은 골짜기 마을로서 바겔이, 당마을, 갈근(葛根)이, 소똥마을, 은산이와 같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달리방은 문천바위 안쪽에 20여 년 전 못을 막은 이후부터 서서히 이주하여 버리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돌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연유하여 석계(石溪)라고 칭하였다.

● **바겔이**

소똥골 어귀에 와우형국(臥牛形窟)의 언덕이 있어 그 등점에 바를 거는 위치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운 이름이다.

● **당마을**

마을 앞 냇가에 400여 년생 느티나무(밑둘레 4.6m) 당산목에 정월보름에 당제(堂祭)를 지오다 2001년 폐지하였다.

- **갈근(葛根)**

주위 산에서 칩뿌리를 많이 켜다 하여 불려진 지명이다.

- **소퐁마을·송동(松洞)**

와우형국(臥牛形局)의 언덕 엉덩이 아래 위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소퐁마을이라 부르며, 그 이름이 천하다 하여 소나무 많은 마을이란 뜻으로 송동(松洞)이라고도 했다.

- **음산이·음산(陰山)**

산이 깊고 음산하여 마을이름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 **달리방·닭입이·닭이봉·계전(鷄田)**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명당이 있는 묘한 봉우리 아래에 있었던 마을이다. 동편 달의현(達義峴)을 넘으면 청송군(靑松郡) 중기리(中基里)의 옷발골에 통한다.

14) 합덕리(合德里)

1914년 덕상리(德上里)와 덕하리(德下里)를 합하여 합덕(合德)이라 하고 황정(黃亭), 머릿골, 양지마을을 통합하여 1, 2리로 분할, 오늘에 이른다.

- **너배**

깊은 산골에서는 비교적 넓은 터에 덕상(德上)과 덕하(德下)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하여 넓다는 뜻으로 너배라 하였으며, 덕하마을에 있는 300여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에서 정월보름에 양지마을과 덕상마을 합동으로 당제(堂祭)를 지낸다.

- **머릿골·수곡(首谷)**

머리 모습의 깊은 골짜기 마을로서 안머리골, 밖머리골, 중머리골이 있다. 북쪽으로 박달봉(504m)이 있다.

- **양지마을**

석계리 쪽 양지바른 곳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 **황정(黃亭)**

황씨성을 가진 이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불려진 지명이라 한다. 한때엔 큰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수령 3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이 남아 있다.

- **점마을**

웅기점이 있던 골짜기마을이며 마을 뒤 류현(柳峴)을 넘으면 청송군(靑松郡)에 닿는다.

15) 월평리(月坪里)

갈피봉(438m) 서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청송군(靑松郡)과 경계를 이루는 꼭두방재(415m)에 이르기까지 박골, 안골, 우마동, 살마골, 꼭두방과 같은 작은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다. 1914년 소월, 고평, 현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죽북면(竹北面) 월평리(月坪里)라 하였다.

● **골밖·바드내·외평(外坪)·하평(下坪)**

소메기에서 월평리(月坪里)로 접어들면 먼저 이 마을이 나타나고 북쪽 골짜기 안쪽에 안골이 위치하며 당제(堂祭)는 안골에서 지낸다. 개울 건너 들판에 고인돌 1기가 있다.

● **안골·안바드내·소월리(所月里)**

하평(下坪) 입구에서 북쪽 골짜기로 접어들어 깊숙한 곳에 자리한다. 월성이씨(月城李氏)가 200여 년 전 개척한 마을이라 전한다.

● **양지마을·가나무지이·우마(牛馬)동**

7가구가 살았었던 양지쪽 마을이다. 큰 가중나무가 있었다 하여 가나무지이라 불렀다 하며, 또는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고 관리들이 우마동(牛馬洞)이라 비하하여 불렀다고도 한다.

● **꼭두방·복두방(福頭房)·고평(高坪)**

군경계(郡境界)인 꼭두방재가 이 마을에 위치한다. 200여 년 전 해주오씨(海州吳氏)가 개척하여 복두(福頭)마을이라 하였으며, 고지대 마을이라 하여 고평(高坪)이라고도 부른다.

16) 방흥리(方興里)

1914년 일저동(日底洞), 등너미, 장터, 방계(方溪)(골안)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흥왕하는 마을이란 뜻을 방자(方字)에 붙여 방흥리(方興里)라 하였다.

● **날밀·일저동(日底洞)**

명산(名山) 서편 산록에 형성된 작은 마을로서 해가 중천에 떠야 볼 수 있는지라 일저(日底) 또는 날밀이라 부른다. 현내리와의 갈림길에 자리하여 있다.

● **등너미**

날밀 마을 북쪽 300여 m 지점 얇은 언덕배기에 형성된 마을이며, 6.25때 심은 느티나무 당산목이 두 그루 남아있어 정월보름에 당제(堂祭)를 지낸다. 부근에 신라시대에는 옥사(獄舍)가 있었다 하며, 날밀 가까운 쪽에 절도 있었다 전한다.

● 정터

등너머에서 큰길을 따라 북쪽으로 100여 m 들어가면 옛날 장이 섰던 작은 마을이 있다. 주위엔 고인돌로 보이는 바위가 논들에 있다.

● 골안·뱅갱이·방계(方溪)

명산(名山) 뒷골에 형성된 마을로서 개천이 모가 났다 하여 뱅갱이라 부르기도 한다. 260여 년 전 밀양박씨(密陽朴氏)가 개척 세거한 마을이라 한다.

● 골밖

골안마을 바깥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시대에 국도가 개설되자 교통의 편의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라 전한다. 골안에 있는 400여 년생 느티나무 당산목에서 삼진날 골안마을과 합동으로 당제(堂祭)를 지낸다.

17) 현내리(縣內里)

옛날 대흥수 때 수면 위에 남은 산머리의 모습이 광주리 같았다 하여 광주리산이라 불리는 광재산(光才山) 남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창(倉)마을을 중심으로 나대(羅代)에 현기가 있었으므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현내리라 이름 하였으며, 창(倉)마을, 중(中)마을, 지통(紙通), 양지마을, 대송(大松)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 창마을

현내리 들머리에 위치하며 창리(倉里)라고도 한다. 현기가 되어 있을 때 관의 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라 전한다.

마을 어귀 성황(城隍)들에는 200~400여 년생 느티나무와 음나무등 노거수림(老巨樹林)이 100여 평 남아 있으며 그 중 최고령수(最高齡樹)인 느티나무(가슴둘레 5.8m) 당산목에서 단오날 중마을, 지동, 양지마을 합동으로 당제(堂祭)를 지낸다. 원래는 이 지역 모두를 창마을이라 불렀다 한다. 이 숲에는 옛 경주부원의 선정비(府尹權相公萬古不忘碑, 府尹兪相公章煥愛民善政碑)가 있다.

● 중마을·중촌(中村)

창마을 서편 양지마을 사이에 위치하며 중간에 있다는 뜻의 지명이다. 동회관이 이 마을에 있다. 원래는 동쪽으로 길게 창마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 지동·지통(紙通)·지등(只等)

종이를 만들던 곳이라 지동(紙洞)이라 부르던 것을 지통(紙通)이라 고쳐 불렀다 한다. 7~8호가 살았던 곳이다. 한때 원(院)이 있었다고도 전한다.

● 양지마을

두마리(斗麻里)와 봉계리(鳳溪里)의 갈림길 양지바른 산록에 형성된 마을이다. 밀양 박씨가 개척한 마을이라 전한다.

● 대송리(大松里)

큰 소나무 숲이 있었던 마을이라 한다. 지금은 전답(田畓)으로 개간되고 그 흔적이 없다. 현기(縣基) 건물의 북쪽마을이란 뜻으로 북관촌(北館村)이라 부르기도 한다.

18) 봉계리(鳳溪里)

베를 모양의 산인 베틀봉(862m)의 동편 계곡에 위치하며 청하군(淸河郡) 죽북면(竹北面)에 속한 것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새목과 두문리(杜門里)를 합하여 봉계(鳳溪)라 하였다. 새목은 큰 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고 40여 호가 살고 있다.

● 새목·봉계(鳳溪)

마을의 지형이 새의 목을 닮기도 하였으며, 마을 어귀에 있는 봉암(鳳岩, 새바우)이란 상징적 바위에 연유한다. 아랫마을에 성계심공회희문불망비(省溪沈公諱希文不忘碑)가 있다.

● 큰마을

봉계 골짜기에서 가장 큰 마을인데 청송심씨(靑松沈氏) 7호, 영양천씨(潁陽千氏) 5호가 세거(世居)하였다. 심씨는 20대째 세거하며 이 마을의 개척자라 전한다.

● 아랫마을

봉계리 들머리에 위치하여 청송심씨(靑松沈氏) 개척 마을이라 한다. 15호 살고 있으며 심씨(沈氏)는 큰 마을에만 세거한다.

● 두문리(杜門里)

송씨가 개척한 마을인데 모두 떠나고 그 후 김해김씨가 난을 피해 들어와 마을을 일구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으므로 두문리(杜門里)라 하였다 전한다.

19) 두마리(斗麻里)

높은 지대의 때 묻지 않은 오지인지라 마고선녀(麻姑仙女)가 살며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손에 잡힐 듯하다 하여 두마(斗麻) 혹은 두마(斗摩)라 이름 하였다 한다. 한편으로는, 현내리(縣內里) 쪽에서 볼 때 뒷 산고개 너머에 이 마을이 위치하므로 뒤미재

(뒫매재)라고도 불리어지던 마을이다. 한때 마(麻)의 재배가 많던 곳이라고도 하며, 두들마을의 발음이 변천하여 두들마, 두마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1914년 죽북면(竹北面)의 현내리(縣內里) 일부를 병합하여 두마리라 통칭하였다. 자연부락으로는 영천군 자양면(紫陽面) 보현리(普賢里)로 넘어가는 죽현(竹峴)에 댕태라는 작은 마을과 벚틀봉 산기슭에 양지마을, 벚틀고개 길목에 두들마을(邱平), 그 서편에 큰마을, 면봉산(眠峰山)쪽으로 트인 골짜기에 위치한 윗마을(上村) 등이 있다.

보현산(普賢山) 중턱에 200여 년생 벗나무 아래에 천제단(天祭壇)이 있으며 정월보름과 유월 유뒫날 천신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근년에 이르러서는 유뒫날에만 지낸다.

● 댕터 · 죽현동(竹峴洞)

대나무가 많은 죽현(竹峴)으로 가는 길에 형성된 마을로서 5호 정도 남아 있다. 서낭당이 있었다.

● 양지마을

면봉산(眠峰山)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월성이씨가 터를 닦은 마을로서 20여 호가 사는데 이씨는 6호 세거하고 있다.

● 두들마을

17호가 살며 두툼히 높은 두들에 형성된 마을이다. 월성최씨 10여 호 세거하며 재사(齋舍) 만귀정(晩歸亭)이 있다.

마을 어귀 다리목에 있는 숲에 제당과 당산목(300년생 느티나무와 벗나무)이 있고, 오천정씨(烏川鄭氏) 가문의 월성손씨 효행비각(孝行碑閣)이 있다.

● 큰마을

50여호가 살던 마을인데 지금은 35호로 줄었으며 깨밭골, 굽돔, 평지마을이란 세 개의 작은 자연부락이 합하여 큰 마을을 형성했다 한다.

영양천씨(潁陽千氏)가 5호 세거(世居)하는데 이 마을의 터주라 전한다.

● 윗마을

두마리의 가장 서쪽편 높은 위치에 있다. 한 때 30여 호 살던 마을이다.

7. 기북면(杞北面)

1) 관천리(冠川里)

옥녀봉(玉女峯) 산기슭에 윗관암, 아랫관암, 대밭골, 은천(銀川)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1914년 관암(冠岩)과 은천(銀川)의 이름에서 관천이라 칭하였다.

● 한жат골(大子谷) · 윗관암

마을 뒤편 태화산(太華山) 골짜기가 크다 하여 한жат골 또는 대자곡(大子谷)이라 부르며, 마을 앞 냇가에 갓 모양의 바위가 있기에 관암(冠岩)으로 불렸다 한다.

● 아랫관암

윗관암 아래쪽 옥녀봉 기슭에 형성된 마을이다. 중관암(中冠岩)이라고도 한다.

● 은천(銀川)

마을 앞 내(川)에서 은(銀)이 나왔기에, 혹은 은하계의 선녀가 승천하지 못하고 옥녀봉이 되었다는 전설에 따라 은하낙지처(銀河落地處)의 내라 하여 불려진 지명이다. 1970년대 은천지(銀川池, 만수면적 28.4ha)가 축조되면서 마을의 일부는 수몰되었다.

2) 대곡리(大谷里)

기계(杞溪)와의 경계지역인 대기터라는 언덕마을을 넘어들면 태화산(太華山)과 비학산(飛鶴山) 사이에 넓게 펼쳐진 들판이 나타난다. 1914년 대평(大坪), 수곡(水谷), 고통(古通), 후리방, 대기터와 같은 자연부락들을 통폐합하여 대곡(大谷)이라 하였다.

● 한들 · (大坪)

‘큰 들’이란 뜻을 가진 한들은 기북면에서 가장 넓은 들이다. 과수원이 많으며, 영일정씨(迎日鄭氏) 재실 모송정(慕松亭)과 500여 년생 팽나무 노거수가 있다.

● 수곡(水谷)

동쪽 산기슭 마을로서 기우제 때 현몽한 신선의 지시에 따라 운주산 물줄기를 당긴 샘을 파서 많은 물이 나왔다 하여 불려진 명칭이다. 마른 우물가에 100여 년생 향나무가 서 있다.

● 고통(古通)

신라 때부터 기북면 지역이 부곡(部曲)인지라 예부터 고관대작들의 통행이 잦았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잦은 행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뜻

에서 불려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마을 어귀 들 가운데에는 가슴둘레 3m 정도의 팽나무 노거수가 한 그루 있다. 근년에 이 마을 들판에서 발견된 박말생(朴末生)의 묘비에 ‘省法古通谷’이란 문구가 나왔는데, 이로써 ‘성법(省法)’은 현재의 성법리를 한정하는 말이 아닌 기북면 일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대기터

기계면과 경계를 이루는 얇은 산능선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면 분계선에 의해 기계 대기터와 기북 대기터로 분리되었다.

● 후리방(後里方)

큰마을 뒤편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린 이름이라 한다.

● 양지말

고통 북쪽 양지쪽 작은 마을이다.

3) 울산리(栗山里)

기북면 소재지인 신기리의 동남방에 물밤, 동북방에 붓골, 거산(巨山)이 있다. 1914년 물물(勿栗)과 거산(巨山)에서 취합하여 울산이라 했다.

● 물밤(勿栗)

과거 밤나무가 많을 때 밤에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써 붙인 팻말이 마을 이름으로 변했다고도 하며, 밤산의 지형이 물(勿)자 같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 붓골·복곡·보곡(浞谷·穉谷)

거산 어귀에 위치하며 보(浞)가 있는 고을이란 뜻과, 정씨(鄭氏)가 입향하여 잘 살게 되었기에 복 받은 마을이란 뜻에서 지어진 지명이다.

● 탕동·거산(巨山)

현재의 마을과 붓골 사이 산기슭에 형성되었던 마을인데 지금은 흔적이 없다. 거산이란 마을을 에워싼 산이 크다는 뜻이다.

4) 용기리(龍基里)

약동산(藥東山)을 배경으로 하여 하천 양쪽에 막실(幕室)과 신기(新基)라는 자연부락이 각각 1, 2리로 구분되어 형성된 마을로서 본 면의 중심 부락이다. 1914년 두 마을을 합하여 용기(龍基)라 하여 기계면에 편입하였었다.

● **막실(幕室)**

300여 년 전 단씨(段氏)가 지금의 막실못 부근에 정착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하여 막실이라 불리었다 한다. 100여 호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다가 막실못이 막아지면서 현 위치로 옮겨 앉게 되었는데, 들 이름이 용전(龍田)이라 마을 이름도 이에 따라 막실과 용전을 혼용하여 불려왔다.

● **신기리(新基里)**

본래 ‘새터’라고 불렸으나 한자로 표기하면서 신기리(新基里)라 불렀다. 신라 때는 화랑의 군사훈련장으로 쓰이던 지역으로 1900년대 초기까지도 송림이 울창한 솔벌(松伐)이었다.

5) 오덕리(吾德里)

1914년 덕동(德洞)과 오도(吾道), 새터, 솔거리마을 들을 합하여 오덕리(吾德里)라 하였다.

● **덕동(德洞)**

덕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의미로 불려진 지명이다. 삽연(鍾淵)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용계정(龍溪亭) 뒤에 위치한 연못 이름에서 연유하며, 일명 덕협(德峽)이라고도 불리운 것은 지형에 의한 것이다.

임란공신 정문부(鄭文孚) 의사가 농재 이언괄(龔齋 李彦适)공의 후손인 사의당(四宜堂) 이강(李壘, 정(鄭)의사의 손녀사위)에게 사우정(四友亭), 용계정(龍溪亭) 등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여강이씨가 세거하게 되어 집성촌을 이루었다. 재실인 성신당(誠愼堂)이 용계정 옆에 있다.

● **솔거리**

덕동 남쪽 옛날 송림이 있던 곳에 도로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 **새터**

솔거리 남쪽에 뒤늦게 새로이 형성된 작은 마을이다.

● **오도(吾道)**

임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여 화왕산(火旺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이인석(李仁碩)공과 경남(慶男), 응남(應男) 삼부자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논어 이인편(里仁篇)의 “吾道一而貫之(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라는 구절에서 취하여 오도리(吾道里)란 지명을 지었다 전한다.

6) 탑정리(塔亭里)

비학산 서편 골짜기의 탑골, 정자(亭子)마을, 중리(中里), 거리마을 같은 자연부락을 1914년 통폐합하여 탑정리라 하였다.

● 탑골(塔谷)

비학산 중턱 골짜기에 나대(羅代)의 절 법광사(法廣寺)의 말사(末寺)인 한 암자가 있었는데, 마을 이름도 이에 준한 것이다.

● 중리(中里)

탑골과 정자골, 새터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160여 년 전 이 마을 출신 이준(李俊)이란 선비가 성균진사에 합격하여 화짓대를 쫓고 잔치를 벌였다는 화주들(화짓들)이 마을 앞에 펼쳐 있다.

● 정자동(亭子洞)

30호 정도 살고 있는 탑정리의 중심 마을로서 마을 속에 큰 느티나무 정자목이 있다. 큰 것은 300여 년생으로 가슴둘레 3.20m이다. 지금은 두 그루 남아 있으며 중국 날 두 그루에 당제를 지낸다.

● 거리마을

탑정리 들머리 도로변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다. 옛날엔 큰 정자목이 있어 행인들이 오가며 쉬던 곳이었고, 주막이 있었다 한다.

7) 성법리(省法里)

1914년 무들, 생알, 섬마을, 음지마을, 양지마을, 보살미기, 피밭골과 같은 자연부락을 통틀어 성법리(省法里)라 칭하였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성법이부곡(省法伊部曲)이 있었고, 그 지휘관제소가 덕동에 있었다 한다. 법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이 지역 일원을 예부터 성법(省法)이라 통칭하였다 한다.

● 섬마을(島村)

양쪽으로 냇물이 흘러 섬과 같다는 뜻에서 불려진 지명이며, 파평윤씨 입향조 추모 정자인 삼노당(三老堂)이 있다.

● 음지마을·양지마을

각각 섬마을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일조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불려지는 지명이다.

• 피밭골

마을 남쪽 들머리에 형성된 마을로서 가난할 때 피(稷)를 심어 식량으로 대신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라 한다.

• 보살미기(洑項)

보(洑)의 목(項)에 위치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두 갈래의 시냇물이 합류하는 곳에 보를 막아 4천여 평의 논에 물을 댔으나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아 있다. 학은정(鶴隱亭)과 성법교회가 이웃하여 있다. 삼짚날 피밭골 앞 향나무(100여 년생) 당산목에서 동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영일군, 1990.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북마을지》,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포항시, 《아름다운 포항, 유서깊은 마을》, 2007.